Weekly 공감
2011.01.26 NO.95
gonggam.korea.kr




# 100세 시대의 누림과 책임

## 포퓰리즘의 함정… 무상 복지는 없다 P23~45



# 고령화시대 대비 정답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이 14퍼센트를 넘어서고, 2026년이면 20퍼센트가 되어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유럽 선진국의 노인인구비율은 현재 20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2050년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38.2퍼센트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고령화 수준은 3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사회는 걱정거리이기보다는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80세에 근접해 있고 90세 시대, 100세 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80세 이상 사는 세상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기도 하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소득과 건강이 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금융 및 재산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지만 확실히 믿을 것은 별로 없다. 근로소득을 얻자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이자소득이 임대소득을 거둘 자산이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이 최근의 조사결과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원조달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욱이 나이 들면 건강부터 만만치 않다. 없던 병도 새로 생겨나고 몸의 각 부분에 기능저하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젊었을 때는 병원 문 앞도 가지 않던 사람도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된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급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부담은 근로인구의 감소 등으로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미래 재정추계는 인생 80세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인생 9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오면 그 부담은 비례적이 아닌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생 80세 가정하에서도 충당하기 어려운 각종의 재정부담 문제는 100세 시대에는 재앙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선택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여름과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것은 안다. 풍성한 여름에 땀 흘리고 가을걷이한 양식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추운 겨울에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복지선택에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G

# Contents

Weekly 공감
2011.01.26
NO.95 통권 196호
http://gonggam.korea.kr




**표지 이야기**

1월 21일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해적으로부터 풀려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안도하고 있다.

**발행일** 2011.1.2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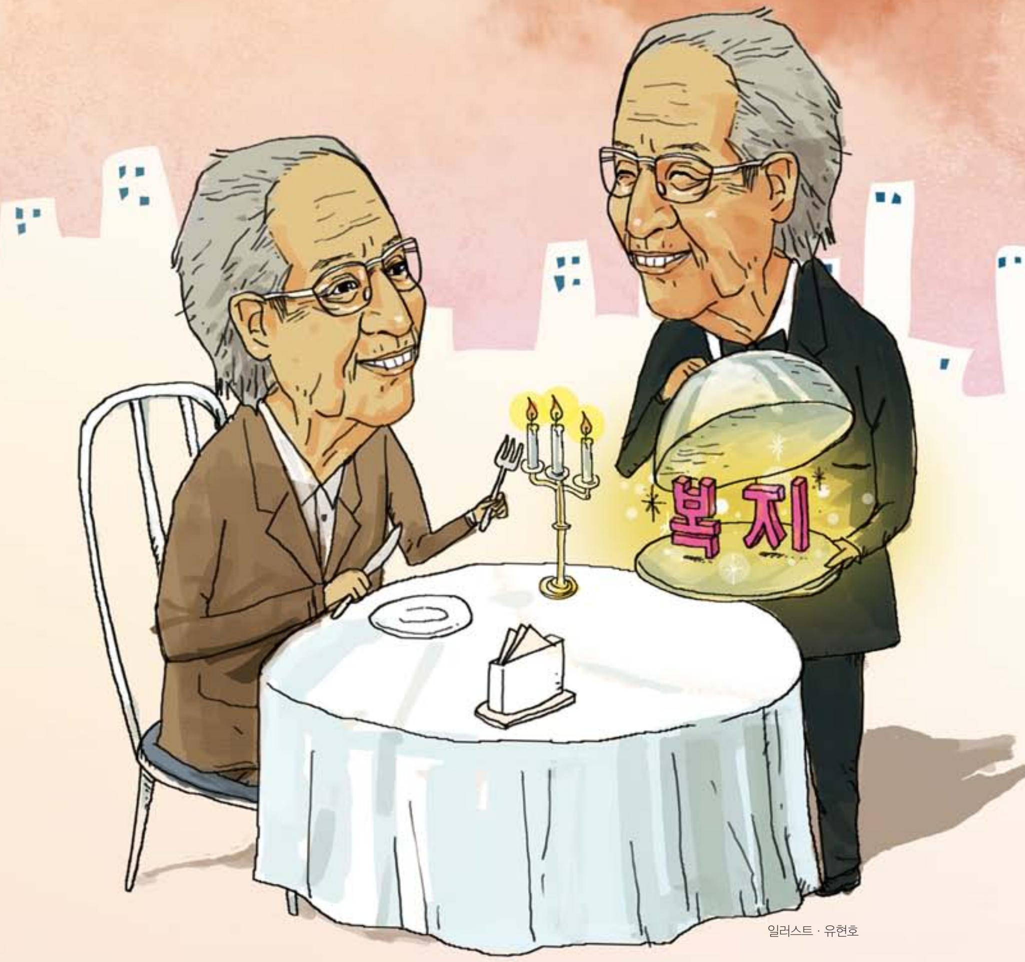
**알림** 제작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는 당분간 싣지 못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 누림과 책임 함께하는 100세 시대의 이상 복지

오랫동안 인간이 품어 온 불로장생의 꿈이 축복과 쇼크의 기로에 놓여 있다.
빨라진 은퇴, 길어진 여생, 준비 없는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이다.
100세의 꿈이 축복이길 바란다면 스스로도 준비해야 한다.




일러스트 · 유현호

24



46



18





#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4호(1월 19일자) 기획특집 'G20세대'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세계 중심에 우뚝 설 G20세대 기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한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든 유통, 문화 등이 교류하는 지금 감성과 끝없는 상상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G20세대에 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시대와 달리 물자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하여 참을성과 의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한국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양호**

### '글로벌 코리아'는 G20세대의 몫

"작년에 서울에서 치른 G20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는 자랑과 자부심의 압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풍요시대를 이른바 구세대가 구축했다면 더 나은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 고착화는 이제 G20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패기와 용기, 그리고 불굴의 도전으로 위풍당당 코리아의 펼침에 G20세대 모두가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주기 바랍니다." **황복희**

'창업에 성공한 G20세대'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감성과 상상력으로 성공신화' 기사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취업대란과 똑같은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추세가 안타까웠는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많은 청년이 이 기사를 읽고, 자신감을 얻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지연**

'구제역과의 전쟁'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의 모습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한마음 한뜻이 돼 슬기롭게 국난 극복한 우리 민족이기에 민 · 관 · 군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의 구제역 사태도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경욱**

'공공요금 동결… 물가불안 심리 잡는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층의 가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하게 되므로 빨리 물가불안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정렬**


감성과 상상력으로 성공신화


공공요금 동결… 물가 불안 심리 잡는다

**알립니다**

###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로고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가맹시장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종류는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전국 시 · 군 단위 우체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은 현금으로만 1회 3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금액의 3퍼센트를 할인받는다. 법인은 한도 제한은 없지만 할인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생태관광 홍보에 참여하세요

환경부는 생태자원의 가치 및 인식 증진과 생태관광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청소년 대상 생태관광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대학(원)생, 고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생태관광 홍보 동영상 UCC, 사진, BI 부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모전은 생태관광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 | 2월 4일까지
**혜　　택** | 상장 및 상금 최대 3백만원 수여
**응모 방법** | 생태관광 홈페이지(www.eco-tour.kr)에서 신청서를 등록한 후 출력하여 작품과 함께 우편 제출
**결과 발표** | 2월 24일 생태관광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생태관광 블로그 게재
**문　　의** | 대한민국 생태관광 블로그(koreaecotour.blog.me), 이메일 ksh@bistra.co.kr

**바로잡습니다** 〈Weekly 공감〉 94호(1월 19일자)에 실린 '국립공원 설경 40선' 표에서 '계룡산 해인사'는 '가야산 해인사', '가야산 황골탐방지원센터~비로봉~구룡사'는 '치악산 황골탐방지원센터~비로봉~구룡사'로 바로잡습니다.

## 공감퍼즐

| | | | | | |
|---|---|---|---|---|---|
| | 1 | | 2 | | 3 |
| 4 | | | | | |
| | 5 | | | | |
| | | | 6 | | |
| | 7 | 8 | | | |
| | | | | | |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2월 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소나 돼지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
4. 병의 아가리나 구멍 따위에 끼워서 막는 물건. 병○○.
5. 거북과 경주한 동물. 올해는 이것 띠죠.
6 어린 소.
7. 눈이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세로**

1. 고구려 제19대 왕. 18세에 왕위에 올라 불교를 신봉하였고, 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 만주와 한강 이북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했죠. 만주에 이 왕의 비가 있죠.
2. 음력 설날.
3.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6.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하늘에서 하얀 눈○○가 내린다."
8. 두 눈 위에 가로로 모여 난 짧은 털. 속○○.

**〈Weekly 공감〉 93호(1월 1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뉴스 **3** 방패연 **5** 마중물 **6** 관악산 **7** 크레용
**세로** **2** 스마트워크 **3** 방물 **4** 연말정산 **5** 관용 **8** 레슨

**〈Weekly 공감〉 9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동헌 ·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안준희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차숙 · 전남 영암군 미암면
이태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최태선 · 경북 구미시 광평동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⑪

# 이태석 신부가 만든 톤즈의 기적!

**구수환** PD



연합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이 150여 편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울지마 톤즈〉를 통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부라는 것과 너무 일찍 세상을 뜨셨다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을 가셨다는 것 등이 PD로서 방송으로 제작해 볼 만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나는 떠났지만 너희는 외롭지 않다'는 신부님의 마음을 담아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톤즈는 아프리카 수단의 한 마을 이름입니다.
톤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는 과연 현지 사람들이 신부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에 촬영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내내 신부님이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마을 분들에게 신부님 사진을 보여주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부르는 현지 노래였습니다. 이런 반응에서도 신부님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톤즈에서는 아이들도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신부님은 아이들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보니 아이들의 공부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의사가 돼서 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만든 기숙사도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쟁 중인 가난한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톤즈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부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이탈리아 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전쟁 속에 살아서 옆집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결국 눈물바다가 돼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신부님에 대해 찍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보여준 것은 사랑 그 자체라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종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사다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입장, 교사로서의 입장, 사회지도자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신부님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관련기사 46~47면)

정리 · 이제남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오우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 '종교 석학과의 대화'라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니터 교수의 언급과 같이 모든 종교인이 각 종교에 대한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배려해 준다면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2. G20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젊은이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결과물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 또한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26세의 젊은 청년이 창업 아이템으로 삼아 발전시켰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글로벌한 그들의 폭풍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3. 영화나 스포츠 등의 문화적인 코너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 이벤트 정보를 자주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세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소식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가뜩이나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노력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물가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글로벌 리더 양성에 한마음' 기사에서 G20 세대를 위한 각 기업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국판 주커버그'가 나올 환경을 만들 것이라 했는데 과연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3.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노인들을 위한 실버정책에 관한 기사도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 독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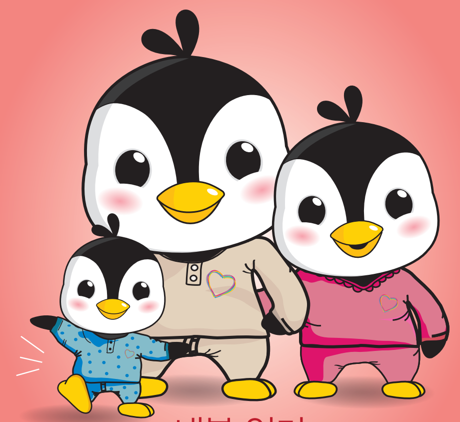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7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공짜 없는 100세 시대'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무릎담요 사용하기



내복 입기



카디건(조끼) 입기

#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 실내온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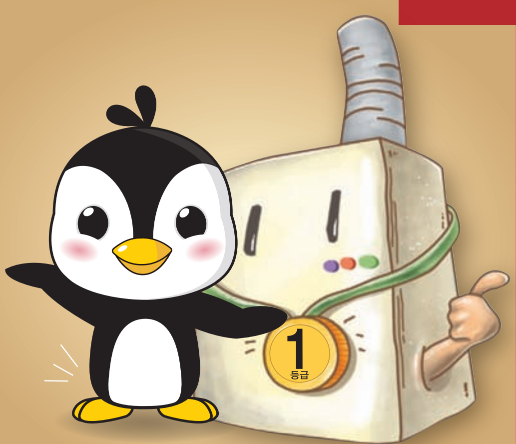
올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8가지 에너지절약 비법**을 공개합니다



커튼 달기



틈새바람 막기




효율높은 난방기 쓰기



카펫트 깔기



덧신 신기

## **내복입기**로 체온은 올리고 **난방비**는 줄이세요

### 1℃의 비밀, 난방비 절약

실내온도 1℃를 낮추면 난방비 7%가 절약됩니다.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 낮추면 난방비를
약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건강온도의 비밀, 18℃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실내온도를 20℃~18℃로 설정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유지합니다."

– 유병연 교수(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그린에너지패밀리(www.gogef.kr)
생활전반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실천 운동


연합

여명에 맞춰 해적 진압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의 고속단정과 링스헬기가 삼호주얼리호에 다가가고 있다.

### 피랍 삼호주얼리호 탑승 선원 전원 무사히 가족 품으로

# "국민 안전 위협 어떤 행위도 불용" 입증

해적들과의 대화는 없다.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가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 모두를 무사히 구출했다. 청해부대의 이번 구출작전으로 해적을 비롯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난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와 탑승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피랍된 지 6일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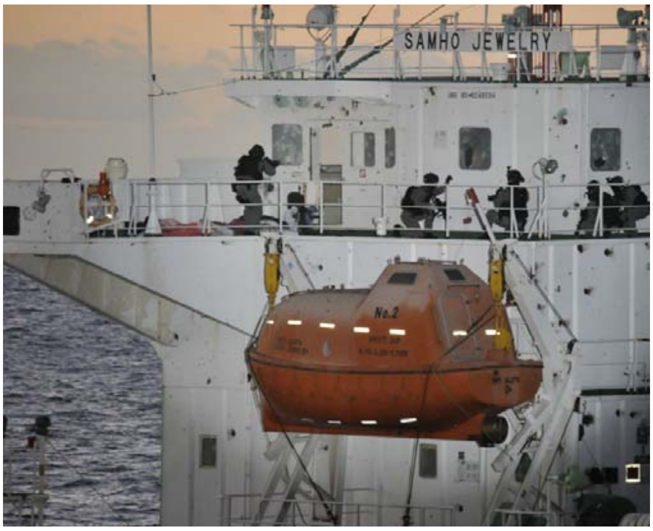
국방부는 1월 21일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이날 오전 9시56분경(우리 시각 오후 2시56분경) 삼호주얼리호를 피랍했던 해적 13명을 완전 제압하고 선원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는 우리 선원 8명 전원을 비롯해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총 21명의 선원 모두 구출했다. 이날 작전 과정에서 우리 특수요원(UDT) 작전팀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군이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명하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온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은 이날 아덴만 해역의 여명시간에 맞춰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번 작전은 21일 오전 4시58분(우리 시각 9시58분)부터 오전 9시56분(우리 시각 14시56분)까지 4시간58분 동안 진행됐다. 우리 UDT 작전팀은 구축함인 최영함의 위협 함포사격과 링스헬기의 엄호 사격하에 은밀히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했다.

기민하고 일사불란하게 선교와 기관실, 50여 개의 격실을 차례로 장악한 UDT 작전팀은 AK소총과 기관총, 휴대용대전차유탄 발사기(RPG-7)로 무장한 해적 13명 전원을 제압하고 피랍된 선원의 안




국방부

UDT 작전팀이 삼호주얼리호 선교 조타실에 진입하기 직전 모습.

전을 확보했다. 이번 작전에서 해적 5명을 생포하고 8명이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선원 중 부상자는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57)씨로 복부에 총탄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응급치료를 받은 석 선장은 미군 지원 헬기를 이용해 인근 국가 병원로 이송됐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가 무사히 석방되게 된 데에는 석 선장의 기지가 큰 역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 작전시간 확보한 선장 석해균씨 구출 성공의 숨은 공신

국방부는 "선장이 최초 피랍 이후 해적들이 빨리 소말리아 연안으로 가길 바랐지만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시간을 늦춰 첩보를 제공했다"며 "작전 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청해부대는 앞서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51분경(우리 시각 오후 7시 51분) 몽골 선박을 추가 피랍하기 위해 삼호주얼리호에서 하선해 움직이던 해적의 소형 보트에 대해 링스헬기에서 위협 사격을 가해 가며 교전을 가졌다.

이날 교전으로 해적 수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으며 우리 UDT 작전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국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1명은 치료 중이고 2명은 치료를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파병기간 중 최초의 군사작전으로 피랍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우리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3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아라비아해에 파견된 이래 22개월 동안 아덴만 지역에서 우리 상선 보호와 해양 안보 증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이 "대한민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의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 일지

| | |
|---|---|
| 15일 12시40분 | 한국인 선원 8명 등이 승선한 삼호주얼리호 해적에게 피랍 |
| 16일 00시30분 | 청해부대(최영함) 지부티항에서 피랍해역으로 출동 |
| 18일 04시 | 청해부대 피랍해역인 아라비아해 입구 도착 |
| 18일 20시 |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의 몽골 선박 추가 피랍 저지 |
| | 해적 수명이 총격으로 실종, 우리 해군 3명 부상 |
| 19일 10시20분 | 오만 해군 함정 작전 지원 차 도착 |
| 19일 11시40분 | 삼호주얼리호 3노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
| 19일 13시20분 | 삼호주얼리호 6노트 속도로 소말리아(남쪽) 방향으로 이동 |
| 19일 오후 | 해군 부상자 3명 오만의 한 병원으로 후송 |
| 21일 9시58분 | 청해부대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개시 |
| 21일 14시56분 | 해적 완전 제압하고 선원 21명 모두 구출 |

### 아덴만 여명작전 이 대통령이 지시

해적과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삼화주얼리호 선원구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청해부대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 군이 방금 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우리 선원 8명을 포함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 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후 5시 12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인질구출작전을 명령 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작전을 위해 협력해 준 우방국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해적에게 인질이 된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한 안도감과 이번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그리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협력해준 민간과 언론 모두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이 대통령의 짧지만 기쁨에 찬 담화였다.

정보가 제한되고 해적과 인질이 혼재된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치밀한 계획과 연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한 작전수행 능력을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다.

국방부는 "작전과정에서 정부 유관부처, 군과 연합 해군사(CMF), 선사 및 언론사 등 민·관·군이 선원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도 언제든 같은유형의 피랍사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며 사전 예방과 유사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던 1월 14일 전라남도가 담양지역에서 군과 경찰까지 동원해 '청정 전남'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 "설 연휴 이전에 진정시킨다"

지난해 11월 1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온 뒤 구제역과의 사투가 50일을 넘기고 있다. 소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전국에서 거의 완료돼 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발생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돼지에 대한 접종은 아직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1월 19일 행정자치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구제역 방역 관계 부처, 시도 부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의 백신접종 추진상황과 설 연휴 방역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예방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인 2주일 정도 지난 1월 초부터 구제역 발생 신고 건수가 줄고 매몰처분 대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몰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모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설 이전에 구제역의 큰 줄기를 잡기 위해 '전국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소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거의 완료됐다. 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날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약 3백58만 마리의 소에 대해 대부분 접종을 완료했다. 매몰처분된 소는 구제역 발생 이전 전국에서 사육된 소의 3.7퍼센트가량인 13만여 마리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돼지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이날까지 17퍼센트만 마쳤다. 이날까지 매몰처분된 돼지도 전체 돼지의 21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전체 매몰처분 대상 2백16만 마리 중 돼지가 2백2만 마리, 전체 매몰처분 가축의 93.5퍼센트에 이른다.

소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에 돼지보다 훨씬 취약하지만 소규모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아 구제역 확산이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 돼지의 경우 대부분 축산 밀집지역에서 대규모로 사육하고

조선DB

있어 매몰처분 대상이 소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돼지에 대한 매몰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돼지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 도입 일정에 따라 들여오는 백신을 공항에서 당일로 백신투여 현장까지 배송, 그날 밤중이라도 백신 접종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 매몰지 상수도 확충 지원해 주민불안 해소

백신이 접종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예방활동 강화와 방역수칙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번 구제역 확산에는 추위에 강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겨울을 맞아 활성화된 데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 인구와 차량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구제역 방역에 대한 새로운 대비가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기간 중 대규모 차량과 사람의 이동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 밀집지역에는 우회로가 설치되며 이중 통제초소가 설치된다. 터미널, 철도역, 공항과 항만 등에 발판소독기가 설치되며 대형할인매점,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 매몰처분을 최소화하고 설 이전에 구제역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방역수칙, 국민행동요령, 방역활동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물론 구제역과 백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귀성길 교통 대책은 한파와 구제역 방역 등 예년과 다른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도 고향 방문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설 연휴 사람·차량 이동 방역대책 강화

한편, 환경부는 가축 매몰지 인접 주민들의 식수오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몰지가 추가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1월 20일 수요조사를 실시해 상수도 확충 사업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7개 시·군에 예비비 8백5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선DB



소에 이어 돼지까지 구제역이 심각해지고 있어 돼지 예방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우선 1월 말까지 낙동강 상류지역의 부실우려 매몰지 90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한강 상류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1월 말까지 취약 매몰지 현황을 제출받아 문제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 오염 방지를 위한 옹벽·차수벽, 우회 배수로 설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 구제역 조기 종식, 국민이 뜻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이렇게 동참하세요**

1 설 연휴기간 중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2 부득이하게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에는 차량은 물론 사람도 소독해야 합니다.
3 구제역 발생 지역 방문 시 소독 등으로 불편하실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세요.
4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해외에서 돌아올 때는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6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농가 방문하지 말아 주세요.
7 터미널, 철도역, 공항·항만 등에서는 발판소독기로 살균해 주세요.
8 대형할인매점, 백화점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방역에 협조해 주세요.

**축산농가는 이렇게 해 주세요**

1 농장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 주세요.
2 방역복과 신발을 준비해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갈아입도록 해주세요.
3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 조수의 농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시도 간 사료공급을 받을 경우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환적장을 이용해 주세요.
5 외부 행사나 축산 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6 설 연휴기간 동안 축산농장주뿐 아니라 농장 근로자들도 외출과 이동을 삼가고 구제역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첫번째로 찾은 여주군청.



여주와 이천 경계 지역의 방역초소.

## 수도권 남부 축산벨트에 간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 "소 백신접종 완료… 이젠 돼지 지키자"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 연일 구제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도권 남부의 '축산벨트'를 찾았다. 구제역 추가확산이 우려되는 여주·이천·용인 등 동서로 펼쳐진 축산벨트를 찾은 유 장관은 방역 관계자와 축산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모스크바가 울고 갈 추위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던 1월 셋째 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의 여주군청 1층 출입구에 설치된 무균소독실은 이곳이 구제역 전장(戰場)임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 16일 14:00 여주군청 도착
**"백신보급 예방접종에 최선 다하겠다"**

이날 오후 2시경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여주군청에 도착했다. '수도권 남부 축산벨트' 방문의 출발지로 여주를 택한 것이다. 이 지역은 사람과 차량 왕래가 가장 많은 데다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어 소에 이어 돼지에 대한 구제역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김춘식 여주군수 등 군청 직원과 방역 관계자들이 유 장관을 맞이했다. 유 장관 일행은 무균소독실을 통해 지난해 12월 23일 설치된 여주군 비상상황실로 들어섰다.

신륵사와 세종대왕릉 등 역사적 명소로 유명한 여주군은 한우 1만8천3백여 마리, 젖소 1만1천2백여 마리, 돼지 19만여 마리 등 22만1천5백여 마리를 사육하던 도내 5위권의 축산 지역이었다.

여주군은 지난해 12월 23일 경계를 맞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유 장관의 방문지역 중 상황이 가장 나빴다.
여주군의 구제역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목소리는 비장했다.

"한우 1천8백99마리, 젖소 9백27마리, 돼지 6만7천6백7마리 등 총 7만5천3백3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이는 여주군 전체 사육가축의 33.9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여주에서는 매몰처분과 방역, 예방접종 등에 하루 평균 3백50여 명의 공무원과 소방관,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춘식 여주군수는 구제역이 비켜간 마을 사례를 전하며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고했다.

"흥천면 북대리, 북내면 상교리 같은 지역의 경우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철저하게 자치 방역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군수인 제가 방문해도 악수조차 하지 않더군요."

여주군은 유 장관에게 ▲매몰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의 조속한 지급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 출하 ▲전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 등을 건의했다.

유 장관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보급할 테니 적극적으로 돼지 자가접종을 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의 부탁이 이어졌다.

"소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마쳤으니 이제 돼지를 지켜야 합니다. 농가 단위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치고 힘들겠지만 축산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이천시청 비상상황실.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유 장관이 비상상황실 직원들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네고 있다.

## 15:00 이천 비상상황실

### "고병원성 AI대비 방역 강화해달라"

유 장관은 이어 여주군청을 출발해 이천시청으로 발길을 옮겼다. 42번 국도를 따라 이천시청으로 향하던 유 장관은 여주와 이천 경계 지역 방역초소에 잠시 멈춰 강추위 속에서 방역활동을 펴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분무기로 분사되는 소독약 사이로 비상등을 들고 차량 서행을 유도하던 육군 3901부대 임용혁(21) 병장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한다고 말했다.

이천에서 구제역 방제에 동원되는 군인들만 하루 평균 약 4백명. 육군 7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3901부대 1대대가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을 도우려고 팔을 걷어붙여 50일 넘게 투입되고 있다. 역시 1층 출입구에 무균소독실이 설치돼 있는 이천시청의 구제역 상황 보고 또한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명품 쌀로 이름 높은 이천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 사육 지역이기도 하다.

돼지 사육 마릿수에 있어 도내 1위(37만2천5백여 마리)이고, 젖소는 도내 2위(2만2천2백여 마리), 한우는 도내 4위(1만8천여 마리)로 총 41만3천8백여 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 모두 7만8천1백19마리를 매몰처분했다. 그나마 소 4만7천1백여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모두 마쳐 한숨을 돌렸다. 이제 돼지에 대한 자가접종 차례였다.

조병돈 이천시장 등 이천시 관계자들은 지난 1월 14일 설성면 행죽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AI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철새의 분변이 고병원성 AI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병원성 AI에 대비한 방역 강화도 강조했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산농민들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구제역으로부터 우리 축산농가를 지킬 겁니다."

## 16:00 용인시 백암면

### "가축 한 마리라도 지켜내 주십시오"

유 장관의 이날 마지막 행선지는 용인시 백암면사무소였다. 백암면사무소에 도착한 오후 4시 즈음 짧은 겨울 해가 면사무소 건물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용인은 유 장관이 방문한 '남부 축산벨트' 중 가장 늦은 1월 5일 구제역 확정판정을 받았 다. 소 1만6천6백여 마리, 돼지 25만5천5백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용인은 이날까지 소 2백26마리, 돼지 2만6천1백16마리에 대해 매몰처분을 했다.

용인시청이 아니라 백암면사무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한 것은 용인의 구제역이 백암면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인근 원삼면과 양지면 등 백암 인접지역으로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0년, 2002년에 이어 3번째로 구제역이 발생한 용인지역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듯 항공방제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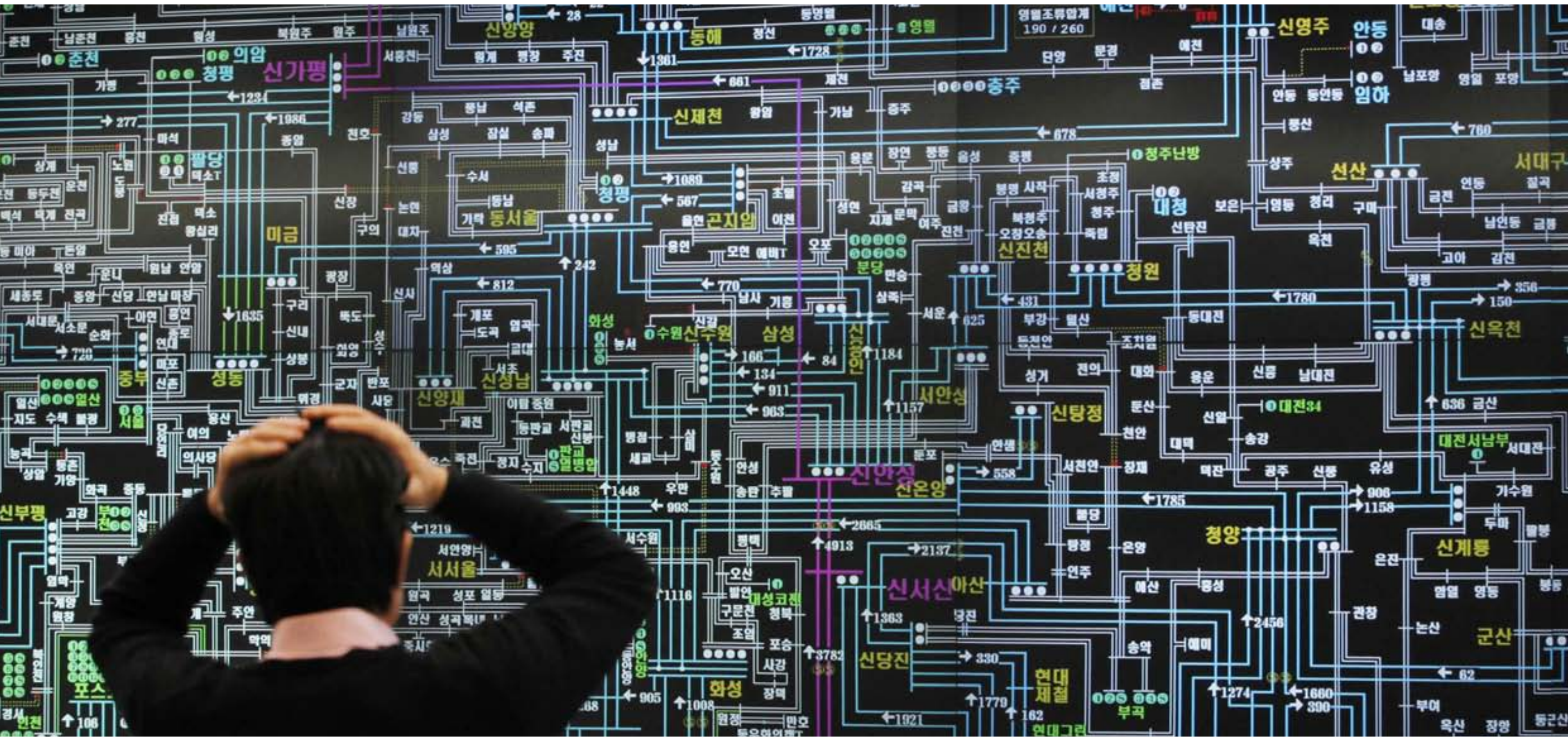
유 장관은 비상상황실에서 보고를 들은 뒤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김학규 용인시장, 김종억 백암면장, 축산농가 관계자 10여 명과 면장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 나오니 빈 축사를 지키는 축산농가의 아픔이 절실합니다. 매몰처분에 가슴 아파하고 과로에 쓰러지면서 방역에 나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수고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유 장관은 예방백신을 맞은 소의 항체가 형성되는 향후 2주가 고비라고 강조했다.

"설까지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켜내면 구제역은 한고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리라도 살려서 지켜내야 합니다. 행여나 시가보상 때문에 방역에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 장관이 과천정부청사로 돌아가는 길목 용인시에서 내건 구제역 플래카드가 겨울바람에 펄럭였다. "구제역! 방역만이 살길이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실내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는 가장 현실적인 전력수급 대책으로 꼽힌다. 전력거래소 직원이 전력수급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오전 11시 ~ 낮 12시 오후 5시 ~ 오후 6시 전력 사용 자제 하세요

## 정부,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과 선진적 전력운용으로 위기 극복 자신

겨울철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상한파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데다 경기회복과 함께 산업용 전력수요도 커진 탓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대책과 더불어 선진적인 전력운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연초부터였다. 전력수급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의 발걸음은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최대 전력사용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면서 전력수급에 이상 징후가 불거지고 있었다. 올 겨울 들어 지난 1월 21일 현재 무려 네 차례나 최대 전력사용량 기록을 경신했다. 일각에서는 '전력대란' 우려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온도를 제한하는 등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시스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은 "예년의 경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면 관련 사업장에서 항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에는 저항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대책에 관계자들이 호응하고 있어 동참 분위기가 확대될 것"이라며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력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내온도 제한은 효과적 수요조절 대책

먼저 실내온도가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18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20도다.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한파의 장기화 탓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난방용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온이 1도 떨어지면 전력수요량은 49만 킬로와트가량 늘었다.

전기온풍기, 전기판넬, 전기히터 등의 전열기 보급은 꾸준히 확대

조선DB

돼 왔다. 전력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저렴한 데다 사용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난방용 전력수요 역시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난방수요는 1천6백75킬로와트로 2003~04년 겨울의 8백25킬로와트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은 말하자면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인 셈이다.

에너지 절약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대책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여름 냉방온도 제한을 시행한 4백41개 건물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기사용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당초 예상치인 7천70만 킬로와트보다 적은 6천9백89만 킬로와트로 낮출 수 있었다.

신 사무관은 "에너지절감대책을 통해 감소하는 난방전력은 전체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히터만 꺼도 하루 3백만 킬로와트 절약**

정부가 전력수급 위기를 에너지 절약으로 대응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적잖다. 일단 당장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도 일시적인 이유로 공급량을 늘린다면 이후에 유휴시설화될 공산이 크다.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범정부적인 물가대책을 시행하는 마당에 선택하기는 어려운 카드다. 그렇다고 산업용 전력 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력 피크 분산 조치도 실시된다.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전 11~낮12시 사이에 공공부문 등의 전력 사용을 자제해 위기를 넘긴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은 오전 10~낮12시에는 운행 간격을 1~3분 연장한다. 오전 11~낮12시 사이에는 전국을 6대 지역으로 나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10분씩 순차적으로 가동을 정지시킨다.

공공기관은 오전 11~12낮시, 오후 5~6시 등 하루 두 차례 1시간씩 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도 요청했다.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히터만 꺼도 하루 300만 킬로와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15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몰리는 오전 10~낮12시, 오후 4~6시 사이의 사용을 자제해도 상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체계적인 위기대응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예비전력량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비전력이 400만~300만 킬로와트면 가장 낮은 경보인 '관심단계'가 발령되는데 현재 예비전력은 500만 킬로와트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인 1백만 킬로와트 이



조선DB

전기 난방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하면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혹한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전력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올 겨울 난방기 신규 구매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이므로 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은경 지식경제부 전력계통과 사무관은 "지금까지 예측이 실패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예측이 빗나가기는 했지만 오차율은 0.9퍼센트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며 전력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적인 대비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월 2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문제는 올 겨울 이후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이 1퍼센트 내외에 그치는 것과 달리 지난해의 경우 한국의 전력사용량은 10.3퍼센트나 불어났다.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전력사용증가율을 1.9퍼센트로 억제하고 49조원을 들여 발전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 경보단계 | 예비전력 | 조치계획 |
|---|---|---|
| 관심 | 400만~300만 | 석탄발전소 출력상향 운전 시행, 발전기별 점검 및 추가 공급 가능용량 확인 |
| 주의 | 300만~200만 | 변압기 수동운전으로 부하증가 방지<br>추가 확보된 비상출력 활용 |
| 경계 | 200만~100만 | 사전 약정 고객의 자율 절전 요청 및 긴급 부하 제어 전기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압기 전압 조정 |
| 심각 | 100만 미만 | 광역 정전 방지를 위해 긴급 부하 차단 |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 출처·지식경제부 / 단위·킬로와트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소송에 대한 잇따른 기각 판결로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사진은 영산강에 짓고 있는 승촌보 전경.

## 영산강도 사업 취소 소송 기각 판결

# 4대강살리기 적법성 논란 종지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 수계에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정부가 승소했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지난 2009년 11월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한강, 낙동강에 이어 금강, 영산강까지 기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소송과 현황**

| 수계 | 법원 | 취소 소송 판결 | 효력 정지 소송 | |
|---|---|---|---|---|
| | | | 현황 | 전망 |
| 한강 | 서울 | 2010년 12월 3일<br>원고 기각 선고 | 3심 진행 중<br>(1, 2심 기각) | 2011년 중<br>선고 전망 |
| 낙동강 | 부산 | 2010년 12월 10일<br>원고 기각 선고 | 2010년 12월 10일<br>1심 기각 | 2011년 중<br>선고 전망 |
| 금강 | 대전 | 2011년 1월 12일<br>원고 기각 선고 | – | – |
| 영산강 | 전주 | 2011년 1월 18일<br>원고 선고 | 3심 진행 중<br>(1, 2심 기각) | 2011년 중<br>선고 전망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월 18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 영향 등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부분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은 4대강반대소송단이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제기한 4대강 각각에 대한 사업취소(4건)와 집행정지(3건, 금강 제외) 소송 가운데 하나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2009년 11월 25일 한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월 26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한강, 낙동강, 금강에 대한 사업취소 소송이 잇달아 기각된 데 이어 영산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강은 지난해 12월 3일, 낙동강은 지난해 12월 10일, 금강은 지난 1월 12일 각각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 "상반기 중 보 건설·준설사업 완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우선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각기 다른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있은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안 국장은 "완료를 눈앞에 둔 국책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4대강반대사업단이 4대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과 더불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한강과 영산강이 1심, 2심에서 각각 기각됐고, 3심 결정이 남아 있다. 낙동강의 경우 1심은 기각됐고, 2심과 3심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의 보(洑) 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1월 13일 현재 각각 73.5퍼센트, 68.4퍼센트로 과반을 넘어 완공으로 향하고 있다.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전체 공정률은 47.9퍼센트다. 수계별로 보면 ▲한강 50.8퍼센트 ▲낙동강 45.1퍼센트 ▲금강 56.2퍼센트 ▲영산강 51.1퍼센트로 낙동강을 제외하고 모두 과반을 넘겼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보 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수변생태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본류 사업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되돌아본 국책사업의 역사

## 경부고속도로 등 '반대'는 늘 있었다


조선DB

비단 4대강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다.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언제나 있어 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주요 국가기간시설 건설사업 중 갈등이 심했던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이 꼽힌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산업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1967년 11월 건설이 확정된 뒤 국가 예산의 23.6퍼센트에 이르는 4백29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걸림돌'이 됐다.

국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당시 여당까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다. 야당에서는 동서 간 도로가 시급하다며 지역불균형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992년 착공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영종도 일대가 철새도래지란 점을 들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반대했다. 또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비행기 이착륙 시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항부지가 런던 히드로 공항의 5배인 점, 공사비가 10조원 이상에 이른 점도 '과다하다'는 비판을 불렀다.

역시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는 산업발전이 경부 축에 편중돼 인구밀집과 환경 파괴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와 시기상조라는 반대 소리가 높았다. 특히 2002년 천성산 도롱뇽 서식지와 관련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유명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도 사패산 시민단체 등에서 터널 부근이 희귀식물 서식지라며 환경 훼손 등을 주장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하지만 이들 국책사업들은 투자 규모에 비해 효과와 경제성이 부족하고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달리 물류, 관광,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본격적인 고속시대를 열어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미 2009년 3월 누적 이용객 2억명을 돌파했다. 물류에서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서울~대구 구간이 완공된 데 이어 2010년 서울~부산 구간이 개통되어 지역 간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꿈에 그리던 전국의 반나절 스피드 생활권화가 보편화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07년 12월 1백27.5킬로미터 전 구간이 완전 개통돼 서울 외곽을 하나의 원으로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길목이 되고 있다. 착공 20년 만의 결실이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역시 멀리, 넓게 내다보아야 한다.



'우리 강 사진 공모전' 수상작

# 강 따라 우리의 꿈이 흐른다

남한강, 동강, 섬진강 등 역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강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전이 최근 열렸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 그림 같은 그곳'을 주제로 강변 자연문화유산을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총 4천6백97점이 출품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그 가운데 수상작 28점을 선정했고,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은 강 사진을 보면 평소 스쳐 봤던 강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은 생각이 든다. G









1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의 여명을 담은 사진이 꿈처럼 신비롭다.
금상 · 김미경 作 〈양수리 여명〉

2 금강 위를 힘차게 날고 있는 새들의 춤사위가 웅장하다.
동상 · 구재규 作 〈군무〉

3 경상북도 봉화군을 지나는 낙동강에 새하얀 눈이 포근하게 감싸안고 있다.
장려상 · 김승현 作 〈청량산과 강〉

4 낙동강 지류인 경상북도 영양군 반변천에 가을이 무르익었다.
장려상 · 김상수 作 〈낙동강 지류의 가을〉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공정사회”

**우리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관 출신답게 그의 부패 척결 의지는 단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부패 척결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 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서경리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사법사상 첫 여성대법관을 지냈다. 2004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첫 여성 대법관이 됐을 때 여성이라는 점이 주된 화제였지만, 10년 정도 위의 선배들을 제치고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법관이 되어 서열파괴형 인사라는 점도 화제였다.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김 위원장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에서 물러나면서 김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또다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대신 학자의 길을 택했고, 지난 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법조인으로서 사회 소수자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그에게 우리 사회의 아픈 이들을 보듬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잘 어울려 보인다. 그의 취임 일성은 “부패 척결”이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에 자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 위편에 ‘청렴韓세상’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다. 목에 두른 머플러는 한층 더 그를 단정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어투는 조용하지만 강했다.

**지난 1월 3일 취임했으니까 취임 보름이 됐는데 밖에서 본 권익위와 안에서 본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밖에 있을 때는 국민고충을 처리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제도개선까지 담당해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 내 야당’ 역할을 하는 기구인 셈이죠.

**위원장 제의가 들어왔을 때 고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평생 재판만 해 왔잖아요. 행정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기관장 경험도 없어 제 스스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지요. 평생 법원에 있었는데 법복을 벗고

난 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도 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간신히 얻은 자유를 또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리를 받아들였는데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 때문이죠. 또 업무성격상 법관 경험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아마도 저를 추천한 쪽에서는 '행정부의 건전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독립된 곳에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의 남편은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다. 강지원 변호사는 청소년, 장애인 등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장 제의가 들어왔을 때 부군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아직 일을 더 해도 되는 나이인데 공익을 위해 봉사를 해야지 왜 이기적으로 생각하느냐'고 하더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라고요. 제가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대법관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법부의 판결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지요."

*"부패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면 거침없이 전염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이죠. 이 질병은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산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 그리고 비리나 어두운 곳을 바로잡는 데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업무의 두 가지 목표죠. 고충업무는 낮은 데까지 세심히 신경 써나갈 겁니다. 반 부패 청렴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겠죠.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178개 국가 중에서 39위이고,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2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는 우리가 선진 일류 국가로 진입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부패를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익위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으로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은 어떤 겁니까.**

올해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 알선·청탁 뿌리 뽑기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무감각하게 행해지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을 시달했는데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인지요.**

올해 지침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청탁 수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부패는 청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패의 근절은 청탁의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권익위는 청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마련해 각급 공공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익충돌 방지장치를 신설하거나 보완해 법령상 내재하는 청탁의 소지를 차단할 것입니다.

**'부패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위원장님이 처음 사용하셨죠?**

네. 부패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면 옆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전염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이죠. 이 질병은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산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저는 부패에 의한 공무의 처리가 만연한 사회가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패방지, 국민고충 해결, 행정심판 처리와 같은 권익위의 고유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권익위야말로 공정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선·청탁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 거래, 병역의무의 부당한 회피 등 공직자·사회지도층의 다양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패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희생을 치르는 사회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이기적 욕망 때문이라고


조선DB

지난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영란 위원장.

봅니다. 부패의 토양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합리적인 연고·온정주의 문화,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후속조치는 잘되고 있는지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G20 각국이 반부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G20 반부패 의제를 통해 결집된 주요 정책방향들이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반부패 실무그룹을 통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권익위도 'UN반부패협약'에서 정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해 두 차례 시험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보완하고 있는데 2월 중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각급 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강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공과 사를 막론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부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심리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매사에 청렴하고 깨끗한 사고를 지니고 있을 때 각종 청탁이나 비리 사건에 빠질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부패행위는 보통 몇 년이 지나서 밝혀집니다. 일시적으로 숨기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김 위원장에게 "전임 이재오 위원장의 경우는 현장을 중요시했는데요"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고충처리 업무도 중요하지만 부패방지 업무에도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골고루 모든 업무에 신경 쓸 생각입니다."

인터뷰 내내 조용하지만 강했던 그의 어투대로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조용하지만 강하게' 이끌어 나갈 것 같다. G

글·김성동 기자

### 부패행위 연루되지 않게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보세요!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 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이 사례집에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사례들이 실렸다. 공직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례들을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건,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 응답 사례 40건 등 총 1백20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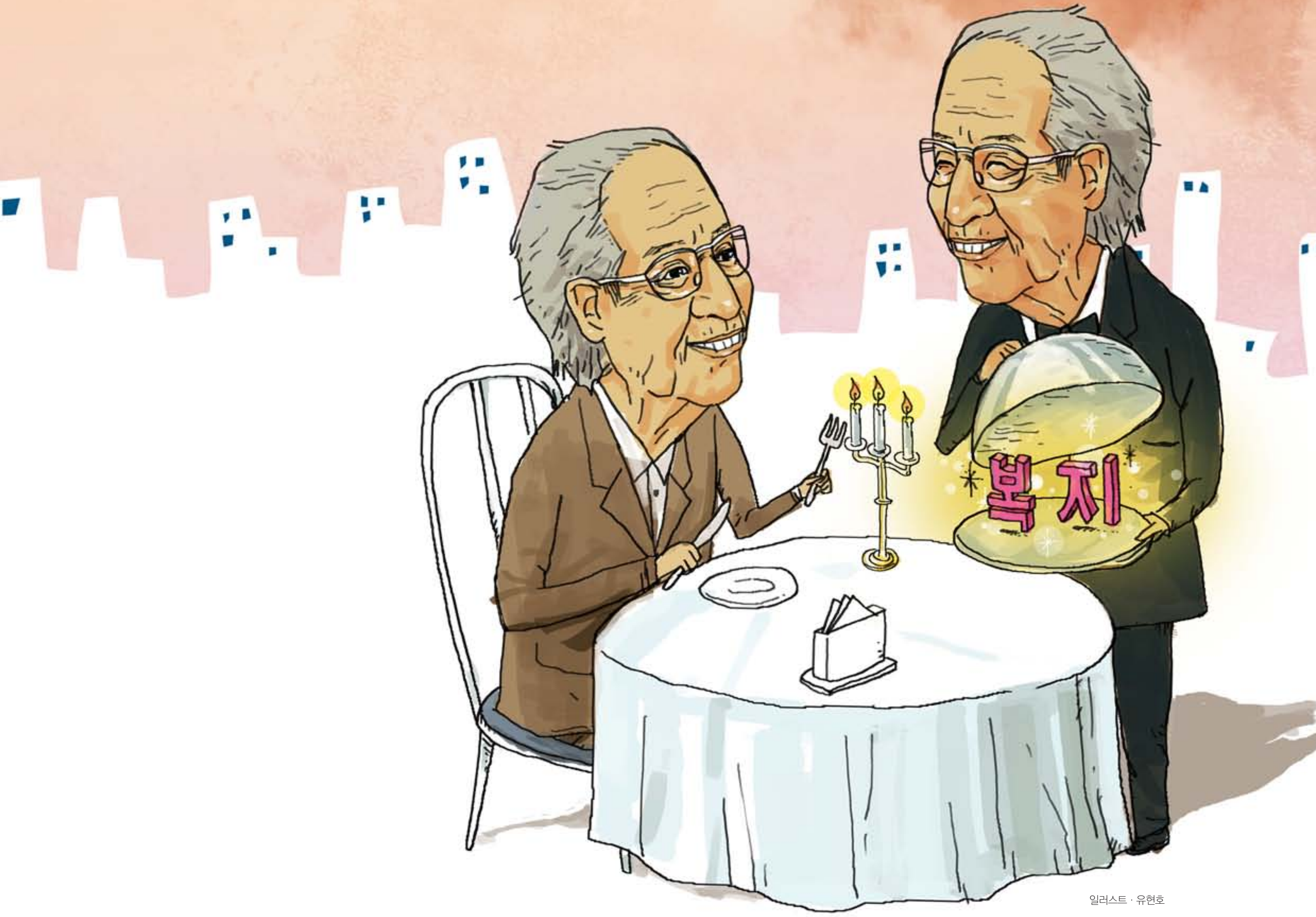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서기관은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집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총 9백65개 기관에 2천1백64부를 배포했다. 추가로 원하는 기관들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 획 특 집

# 대가없는 무상복지 과연 가능한가?

오랫동안 인간이 품어 온 불로장생의 꿈이 축복과 쇼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빨라진 은퇴, 길어진 여생, 준비 없는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은퇴가 인생의 황혼과 마무리를 의미했다면 지금부터 은퇴란 새로운 출발을 뜻해야 합니다.
100세의 꿈이 축복이길 바란다면 스스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축복받은 100세 시대가 되려면 누림과 책임이 함께해야 합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올해 복지예산 전체 28퍼센트로 사상 최고 수준

# 증세도 부담… 후손에 빚만 물려줄 뿐

'무상복지'가 화두다. 하지만 국민 부담 없는 '공짜 복지'란 없다. 2011년 복지예산은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이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재정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무상복지 확대 주장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도 후손에게는 빚뿐인 나라를 물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인터넷에서는 '무진요(무상급식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되고 '무식(무상급식 줄임말)송' 동영상이 돌고 있다.

정치권은 복지 논쟁으로 뜨겁고, 초등학생들마저 무상급식을 둘러싼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잠시 냉정한 충고에 귀 기울여 열기를 식혀 보자.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돼 2050년경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백 퍼센트를 상회할 것이다."

### 현재 복지로도 2050년 국가채무 GDP 1백 퍼센트 상회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발표한 '미래 재정 위험 대비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의 한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저출산·고령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 분야를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위험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고 연구부장은 이날 재정 분야 발표를 맡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전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세제개편 방향과 재정지출 관리의 필요성 등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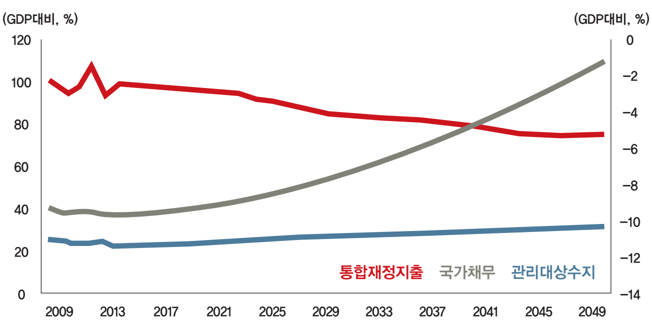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리나라의 재정현황을 진단한 고 연구부장은 "재정지출 역시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분야별 지출 가운데 복지지출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복지지출 중에는 보건과 사회보호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 연구부장은 한국조세연구원(2009년)의 전망을 인용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오는 2050년경 국가채무는 GDP의 1백 퍼센트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2050년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지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복지예산 증액'이 이뤄지는 동시에 국가채무는 1백 퍼센트를 넘어선다는 말이다. 지금도 복지예산이 사상 최고(2011년 전체 예산의 28퍼센트) 수준이다.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 조세부담률 26퍼센트… OECD 평균보다 10퍼센트 낮아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의 국민 조세부담률은 26.6퍼센트 수준(2008년)으로 OECD 평균 35.8퍼센트(2007년)보다 약 10퍼센트 포인트 낮다.

고 연구부장은 "세수 증대는 사회보험료율 인상, 개인소득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2009년)이며 부가가치세율(10퍼센트) 역시 OECD 평균(17퍼센트)보다 낮다.

하지만 조세 증가에 대해 반가워하는 납세자는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2010년 8월)에 게재된 '한국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린 1월 14일 인천 남동구 관교동 내 대형서점을 찾은 어린이들. 지금 복지제도라면 이 아이들이 중년이 될 무렵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재정 규모를 초과할 것이다.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득격차 해소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이었다.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가진 셈이다.

논문 저자인 이한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씨와 이미라(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씨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정부의 재정지원은 '어렵고 뒤처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자립의지 약화와 '모럴 해저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가짜 실업급여 수령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월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짜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 가는 부정수급자나 구직활동은 소극적으로 하며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베짱이들' 때문에 부정 수급률이 2퍼센트에 달한다.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감소하며 4년 연속 적자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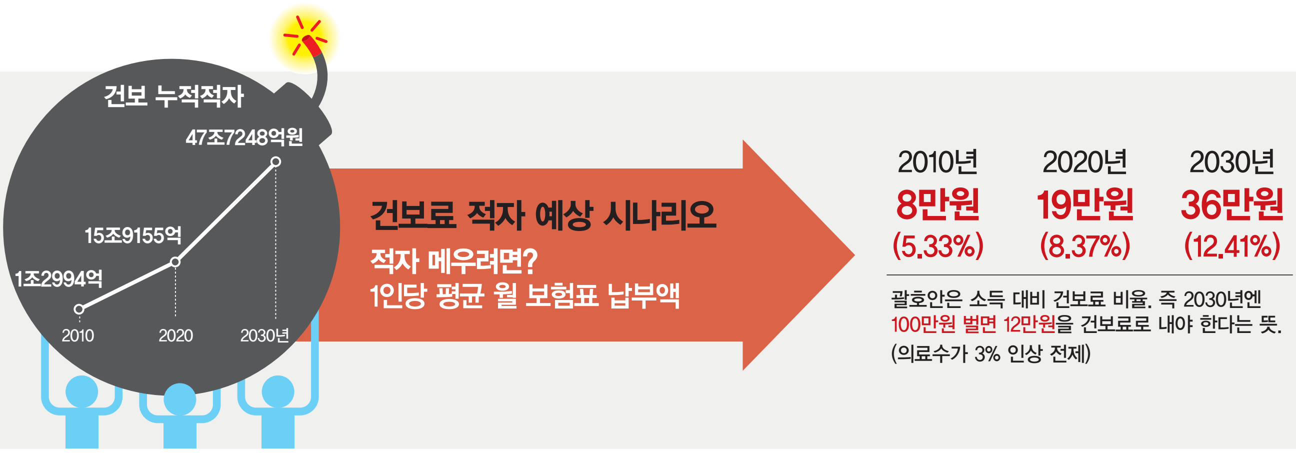
새해 들어 무상급식 논란이 무상복지 시리즈로 확대되자 기획재정부는 복지·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3월 민관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건강보험, 국가채무, 지방재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 '누구에게나 주는 복지' 모럴 해저드 우려

기획재정부는 복지정책의 초점이 무상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중복 혜택으로 인한 누수를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고 연구부장의 충고도 같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가 높은 집단에 복지혜택을 집중하는 방법(Targeting)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와 재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세대의 점심값을 우리가 치를지, 후대가 치를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그 선택이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G 글·박경아 기자




## 2030년 적자 47조 '밑빠진 독'

# "소득의 10퍼센트 건보료로 낼 판"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20년에는 1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2009년 32억원의 적자에 이어 작년에는 약 1조3천억원 규모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적자 규모가 2013년에는 1조5천1백22억원, 2014년 3조1천69억원, 2015년에는 4조7천7백56억원으로 매년 1조5천억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천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에는 15조9천1백55억원, 2030년에는 47조7천2백4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재정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건보 지출은 3.3배, 수입은 2.1배 늘어 불균형 심화

건보재정 지출은 2012년 약 41조6천억원에서 2030년에 이르면 1백37조원으로 3.3배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은 41조6천억원에서 89조3천억원으로 2.1배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 현상도 건보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2012년 약 13조4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70조3천억원으로 18년 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고서에서 "건보 수가를 물가인상 기준에 맞춰 매년 2.5퍼센트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건보재정 적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1년 소득의 5.64퍼센트였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퍼센트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수가를 3퍼센트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는 2030년에는 12.41퍼센트까지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개인이 월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010년 8만원에서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일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데 반해 보험료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오던 건보재정이 앞으로는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본 연구결과는 통계적인 검증을 거친 모형을 활용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지만 일정한 가정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전제조건은, 첫째 현재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퍼센트 규모로 유지되며, 둘째 건강보험 정책에 의한 보장성 추가확대 같은 큰 폭의 재정지출 요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셋째 2030년까지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퍼센트 수준에 이르고, 기타 노인인구 증가율 등은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자료를 고려했다는 것 등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부의 다양한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연구결과에 제시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글·이상흔 기자



조선DB

##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건보료 따로 내는데 무상의료 한국선 불가능”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의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전면 무상의료’에 대해 “무상의료란 돈을 안 내고 모든 병을 치료받는다는 뜻인데 이는 한국에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 등 극히 일부 유럽 국가처럼 국민 세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면 모를까 우리나라처럼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받는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용어”라는 것이다.

**“재정 위험성 외면한 보장 확대는 正道 아니다”**

“나도 이사장이 되기 전에는 건보공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보료 지출절감 방안 몇 가지만 만들면 건보재정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보에 와 보니 무서울 정도의 고령화에다 수명 연장,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고가(高價)의 의료 신기술 등장 등이 건보 지출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어 재정적자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외부에서 건보 보장률 확대만 얘기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또 “우리가 지향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문제(재정 악화)는 덮어버리고 장밋빛 청사진(무상의료)만 국민에게 심어줘 자칫 건보 자체를 흔들리게 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사장 취임 이후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 방문 경험도 얘기했다.

정 이사장은 “유럽 여러 나라를 가 봤는데, 대부분 높은 보장성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고령화 등으로 재정이 나빠져 건보 자체를 재설계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나마 유럽은 의료비용의 총액을 매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보장률을 높였기 때문에 재정 파국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보장률만 늘렸다가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또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오랜 병원 대기시간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등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까지 섣불리 진행하면 건보재정 악화와 고령화의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 빠르게 진행… ‘3층의 복지구조’ 고민 필요”**

그는 의료복지 확대의 대안으로 “①‘필수 복지’ 영역은 공보험으로 해결하고 ②덜 위급한 취약층은 일정 부분 추가 부담은 하되 민간보험보다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선택적 공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③나머지는 민간 보험에 맡기는 등 ‘3층의 복지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스위스·싱가포르 등에서는 이 같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글·이인열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 재정적자 '눈덩이'… 앞다퉈 제도개혁 나서

복지국가의 모델이었던 영국이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유는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복지정책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생각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앞다투어 과감한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다.


연합

2010년 9월 7일 프랑스 야당인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장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내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주겠다며 내세운 슬로건이다. 영국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돼 왔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보건서비스이다. 영국에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자는 자국민과 동일하게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를 비롯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이었던 영국이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 이유는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10퍼센트대를 넘었으며,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조 파운드(1천8백조원)를 돌파했다.

영국 국민들은 가구당 4만 파운드(7천2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영국은 올해 국가부채의 이자로만 4백30억 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국방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다.

### 영국, 올 국채이자가 국방예산보다 많아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해 5월 집권한 영국 보수·자민당 연립정부는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 초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대학 지원금의 40퍼센트를 삭감하고 대신 등록금 상한선을 연 3천2백90파운드(5백90만원)에서 9천 파운드(1천6백20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영국 대학들은 재원의 29퍼센트를 등록금, 35퍼센트를 정부 지원금에 각각 의존해 왔다. 복지정책의 상징인 육아수당도 부모 중

한 명이 4만4천 파운드(7천7백50만원) 이상 버는 가정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을 2012년까지 65세로 늦추고 장기적으로 68세까지 늦추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복지정책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생각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앞다투어 과감한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의 1백 퍼센트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연금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국민의 반대 때문에 계속 개혁을 미뤄 오던 프랑스는 지난해 하반기 시위와 파업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새 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 독일조차 퇴직연령 67세로 연장

유럽 경제의 견인차 독일도 2012~2019년 공공연금 대상자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키로 했고, 복지 예산 감축 등을 통해 2016년까지 매년 1백억 유로씩을 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해 온 북유럽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왔다.

스웨덴 근로자 소득세율은 26~57퍼센트이며 고령연금, 의료보험을 비롯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근로자 임금 가운데 32퍼센트에 이른다. 부가가치세(25퍼센트)까지 감안하면 근로자 실효세율은 최고 71퍼센트에 이른다. 이렇게 높은 세율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꺾을 수밖에 없다.

또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너무 높아 기업들이 아예 외국으로 탈출했다. 1950년 이후 스웨덴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없으며, 노동 가능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두 명은 근로자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거나 복지 수혜자다. 이에 따라 스웨덴 중도보수 연립정부는 질병과 장애 관련 연금 혜택을 줄이고 연금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하는 등 지나친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던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 제도를 뜯어고치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13.6퍼센트에 달했고, 국가부채가 3천억 유로가 되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자 1천1백억 유로의 자금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아야만 했다. 그리스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이다.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보장 지출은 점점 늘




연합

2010년 9월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복지 예산 삭감' 항의 시위를 벌이는 데 맞서 경찰이 진압작전을 펴고 있다.

어났다.

지난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GDP 대비 18퍼센트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15.2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은 95.1퍼센트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다른 나라처럼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환산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높은 퇴직 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이다.

### 스웨덴 근로자 실효세율 최고 71퍼센트

그리스 국민들은 앞으로 여성 연금수령 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향, 60세 이전 조기연금 수령 불가 등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견뎌야 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수당 폐지 등 복지 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는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OECD에 따르면 유럽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동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지구촌의 부러움을 샀던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은 자칫하면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유럽 국가들에 복지는 더 이상 '절대 선(善)'이 아니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개혁 향방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G

글 · 이장훈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사진

프랑스 파리 서쪽 낭테르에서 2010년 10월 18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를 벌이던 젊은이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

# 소득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겠습니까?

국내의 복지 논쟁을 지켜보다 한 석학의 충고가 떠올랐다. 지난해 6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만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78) 교수로부터 들은 충고다. 인도 출신 센 교수는 한평생 빈곤·분배 문제를 연구해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다.

그에게 성장과 분배 간 조화를 이루는, 한국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를 꼽아 달라고 청했다.

"한국 사회를 잘 몰라서…"

선뜻 답을 내놓길 주저하기에 질문을 바꿨다.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은 어떠냐"고. 그의 답은 이랬다.

"우선 한국민들이 소득의 50퍼센트를 세금으로 기꺼이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부터 자문해 봐라."

**무상의료, 정작 유럽에선 개혁 대상**

노(老) 학자의 충고는 두고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국민은 선진국형 복지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사회적 연대의식이 빈약한 한국인의 행태와 기존 복지 선진국의 문제점을 접하다 보면 걱정이 앞선다.

프랑스에선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면 교육비는 공짜지만 점심값은 내야 한다. 점심값은 부모 소득에 비례해 책정되는데, 한국에서 나온 주재원들은 대개 소득을 축소 신고해 점심값을 자기 능력 대비 덜 내는 것을 당연시한다. 좀 다른 경우지만 파리의 한식당들은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탓에 프랑스 세무 당국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선 유럽의 '무상(無償)' 의료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유럽에선 제도 개혁을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 6만명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월소득의 0.75퍼센트·본인분담금 기준) 부담이 한국(2.82퍼센트)보다 훨씬 낮다.

이런 제도가 마냥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프랑스의 의료보험 적자(2010년 기준 2백30억유로·35조원)는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기존 의료보험 제도는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그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내 경우 아들 목덜미에 난 조그만 종기를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과잉진료를 직접 경험해 봤다. 의사는 고름을 짜내는 간단한 치료에 온갖 장비와 비품을 동원하더니 1백만원이 넘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유럽형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의식'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국을 속여서 '덜 내고 더 받으려는' 행태는 확실히 적다. 그런데도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탓에 이제는 복지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제는 유럽에서도 복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고도 가족이 이를 숨긴 채 연금을 계속 타 가는 사례가 급증하자, 연금 수령자에게 매년 '생존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한평생 복지 문제를 연구한 석학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난제가 복지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풀기 어려운 매듭을 단칼에 자르고 큰소리친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까지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언젠가는 '무(無)세금'으로 '완결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G 글·김홍수 (조선일보 파리특파원)

## 무상 공약으로 집권한 일본 민주당

# 1년만에 참의원 선거 패배


조선DB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선거철 마다 내놓은 수많은 복지정책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은 2011년 1월 4일 일본 요코하마의 노인들이 한 아파트 단지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동수당, 고교(高校)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 보조금, 법인세 감세…. 집권 자민당을 밀어낸 일본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이 2009년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자민당의 무기력에 국민들이 실망한 이유도 있지만 매력적인 공약 덕도 봤다.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아동수당과 고교 무상화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이며, 고속도로 무료화는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는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콘크리트(토목사업)에 쏟아 붓는 낭비성 예산을 줄여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얀바댐 건설을 낭비성 사업이라며 중단시켰다. 건설업계, 관료, 정치인들이 토목사업을 통해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토건족 체제' 와의 단절을 고하는 듯했다. 정권 지지율은 70퍼센트대로 치솟았다.

그런데 말은 쉬웠지만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건설 중이던 댐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했다. 결국 최근 공사가 재개됐다. 국회의원 감축, 공무원 인건비 20퍼센트 감축 등 구조조정 공약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초 월 2만6천 엔을 주겠다던 아동수당을 1만3천 엔으로 줄였지만 재정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올해 세수(稅收)는 40조 엔이지만 예산은 92조 엔이 넘는다. 결국 세수보다 더 많은 국채(國債)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탓에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지방채 포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퍼센트가 넘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1백36.8퍼센트)와 아일랜드(1백12.7퍼센트)를 무색하게 한다. 국가부채는 기성세대가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제 자식 세대의 돈(세금)을 미리 빼 쓰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약이 정책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하라는 아동수당은 벌써 상당수 국민의 노후 대비용 저축으로 전락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대도시 주변의 자동차 통행량은 늘렸지만, 지방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금 등 미래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더욱 소비를 줄여 경기 침체의 악순환도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폭락했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할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 반(反)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은 재정위기를 미리 차단하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복지 포퓰리즘이 시작 단계여서 재정 파탄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을 설득해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치권이 '복지'로 국민을 속여먹을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G 글 · 차학봉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 아르헨, 인기 영합 정책에 국고 바닥

페론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닌 인기영합적인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만 높여 놓았다.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욕구와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1960년대 금고가 바닥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2001년 7월 18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항의로 파업에 들어간 아르헨티나의 공무원과 근로자들. 이해 12월 페르난도 데 라 루아 대통령은 시위대에 밀려 결국 퇴진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유한 국가였다. 당시 경제력은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는 훨씬 더 잘살았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가 왜 쇠락했을까? 과도한 복지와 포퓰리즘, 그리고 실패한 산업정책에서 원인을 찾아본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시대는 2차 세계대전 후 등장한 이데올로기인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페론은 노동조합을 정치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대중영합 정책을 펼쳤고, 이런 페로니즘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아르헨티나의 부를 소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4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후보로 나선 페론은 노조(勞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페론과 부인 에비타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급의 권익 신장을 위해 새 노동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와 지위 향상의 길을 열었다. 또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 교통시설, 교육개혁, 사회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임금은 두 배로 올랐고 노동자들은 콩 대신 스테이크를, 벽만 쳐다보며 밤을 보내는 대신 영화와 연극을 보러 다니게 되었다.

### 고통분담을 요구한 용기 있는 정치인 없어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통받고 억압당하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운명을 에비타와 페론이 바꿔준 것으로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돌이켜 보자면 페론시대는 매우 중요했다. 이전 시대에 쌓았던 국부를 원천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틀을 이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복지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지속가능한 복지라기보다는 인기영합적인 퍼주기식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수준만 높여 놓았다. 사회정의는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에 명분을 제공하고, 기존 엘리트층에 대한 대항세력을 모으는 수단으로는 매우 유용한 슬로건이었다.

페론과 에비타는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지위개선, 초등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자선단체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된 연출로 빈민과 노동자의 열광적인 인기와 절

대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단기적인 분배를 이룩했지만 과도한 포퓰리즘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 무서운 사실은 복지에 길든 국민들의 욕구와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1960년대 금고가 바닥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용기와 비전이 있는 정치가가 없었던 탓이다. 아르헨티나의 복지는 과거의 부를 소진시키거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었다.

둘째, 국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합리적 재원에 기초한 복지가 아니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의 대공황 이후 산업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뚜렷한 산업정책이 부재했고 경쟁력 없는 조립 산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부품이나 자재의 수입이 늘어났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돼**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소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보조금을 부담해야 했다. 즉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철강 산업부터 키워야 하는 걸 몰랐던 탓이다.

아니면 호주처럼 농업이나 광업을 특화해서 혁신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했다. 페론시대에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의 기치를 내걸긴 했지만, 기존 (농업)엘리트와 갈등만 키웠을 뿐, 농업도 산업도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차 상품의 수출이 둔화되자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는 페론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라도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에 성공하거나,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외채를 들여와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 1970년대의 남아도는 오일 달러와 값싼 국제 이자율은 당시 군부정권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외채상환 위기와 고인플레로 대표되는 80년대 이후의 실패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복지가 선거의 표와 연결되는 순간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려면 선거철을 피하자.

둘째, 합리적인 재원마련 전략이 없이 경제운영이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복지정책은 피해라. 가장 큰 복지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다. 셋째, 공짜 점심은 없다. 오늘 우리가 편하다면 그것은 필히 누군가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 누군가가 미래 세대가 되어선 안 된다. G

글 ·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문가 기고

## 무상복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단어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무언가 공짜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사실을 알고 보면 복지, 특히 공짜 복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을 걷지 않고, 혹은 국채 발행으로 빚을 지지 않고 정부가 무슨 돈으로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복지정책 과정에서 줄줄 새는 돈은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지불할 것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발설하면 복지는 설 땅이 없고, 복지를 주창하는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막론하고 무조건 주겠다고만 하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어쩌다 재원 조달방법에 관해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있기는 하다.

그들은 부자들로부터만 혹은 기업들로부터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국민 편 가르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일종의 사기다.

한국에서 본받을 만한 복지국가로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보자.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해서 정부에 소득의 50% 이상을 내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담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정치인들이 복지타령에 멋모르고 춤추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소득의 절반을 정부에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면 그 이상으로 더 내놓아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후세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어야만 한다.

공짜 복지 시리즈가 가져올 결과는 불을 보듯 환하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사회보장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빚을 잔뜩 지어 자손들의 어깨 위에 커다란 빚더미를 얹어주게 된다.

복지타령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혜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근면과 성실, 도전과 모험, 자기책임 등 건전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런 사회는 쇠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진리는 이렇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글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 老? No! 50대 올드맘 · 황혼재혼 늘어난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올드 맘'이 늘어나고 있고, 황혼 재혼이 늘면서 노인들을 겨냥한 실버산업도 번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 사이 노인(65세)이 된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남성은 7백53명(1990년)에서 2천1백40명(2009년)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정복(50)씨는 지난해 12월 10일 2.65킬로그램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서른아홉 살에 결혼하고 10년 만에 얻은 아들에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다. 김씨는 스스로를 '인간 승리'라고 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 저는 칠순 잔치를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남들보다 늦은 만큼 아들 교육자금도 알뜰히 준비해 놨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 둘 중 하나는 못해도 80세 이상은 살 테니 부모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자기 인생도 보람 있게 살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도 상당한 확률로 100세 가까이 살게 되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로병사 루트도 달라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며 '올드 맘(old mom)'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추세이고, 황혼 재혼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실버산업도 번창하고 있다.

출산 열흘 후, 퇴원하는 날 만난 김정복씨는 품에 안은 아들을 유리병 다루듯 했다. 젊어서 국내 대기업에 다녔던 김씨는 불꽃처럼 일하고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는 '화려한 싱글'이었다.

### 화려한 싱글로 지내다 늦둥이 출산

자유로운 집안 분위기 덕에 결혼에 대한 압박을 덜 받다 보니, 남들보다 늦게 가정을 꾸리게 됐다. 난임(難姙)으로 7년간 병원을 다닌 끝에 아이를 얻어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앞으로의 목표는 남들보다 젊게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


조선DB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 함께 사는 전영관 할아버지와 이원옥 할머니는 2009년 재혼해서 황혼을 함께 보내고 있다.

로 세웠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유성 교수팀이 통계청의 출생통계 10년치(1997~2007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 피크 연령'(그해 가장 많이 출산한 여성 연령)은 '1981년 26세→2010년 30세'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1981년에 태어난 아기는 10명 중 8명이 20대 엄마 품에서 첫 울음을 터트렸지만, 2009년에는 아기 10명 중 4명만 20대 엄마 품에 안겼다. 반면, 30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네 배 늘어났고(14.7퍼센트→56.8퍼센트), 40대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0.95퍼센트→1.7퍼센트).

출산 피크 연령은 갈수록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년 뒤 출산 피크 연령이 31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박 교수팀은 새 분석틀을 통해 2030년 이 연령이 만 34세로 통계청 예측보다 세 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강남 차병원 차동현 교수는 "50대 중반에 다른 사람 난자를 통해 쌍둥이를 낳은 사례가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불임치료 기술이 발달해 노산(老産)의 두려움이 엷어졌다"고 했다. 현대 의학의 도움으로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던 '늦둥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 부부처럼 초혼 연령과 첫 아이 출산이 늦어지는 경향에 더해, 황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황혼 재혼도 활발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 사이 노인(65세)이 된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남성은 7백53명(1990년)에서 2천1백40명(2009년)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75세가 넘어 결혼한 경우도 같은 기간 1백28명에서 3백70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따진 것이기 때문에, 자녀 결혼이나 상속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을 따지면 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미팅 등 황혼 재혼시장 수요 확대**

지난 2009년 재혼한 전영관(76)·이원옥(71)씨 부부는 결혼 후 주변에서 "회춘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처럼 덤덤하게 지내던 전통적인 노부부들과 달리, 부부는 외출할 때 손을 꼭 잡고 걷는다. 또 정답게 이부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그때까지도 부인은 깍지 낀 남편의 손을 자기 뺨에 대고 있다.

전씨는 "노인들이 1~2년 정을 나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10~20년 사랑하는 것과 같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가 다르게 보이고 즐거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북의 한 복지관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윤모(68)·김모(68)씨는 실버 신혼에서 황혼 이혼으로 추락한 경우다. 두 사람은 2005년 복지관에서 주선한 실버미팅 자리에서 만나 10개월간 이메일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며 열애하다 결혼했다.



조선DB

지난해 12월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출산한 김정복(50)씨는 앞으로의 목표를 "남들보다 젊게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정다운 한때를 보냈지만 2년 만에 갈라섰다. 김씨는 "외로워서 만났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윤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3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응답자(44.2퍼센트)가 "실버 신혼에 찬성한다"고 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때 예외적인 현상이던 황혼 재혼·실버 신혼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하는 게 좋다"고 선선히 받아들이는 선택이 된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이웅진 사장은 "생활의 필요에 쫓겨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정서적 충족감을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양상"이라고 했다.

선우는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매년 어버이날에 무료로 '실버미팅' 행사를 가졌다. 최근 4~5년간은 이 실버미팅이 중단됐는데, 매년 5월 무렵에는 실버미팅 관련 문의가 쏟아진다.

이웅진 사장은 "올해부터 실버미팅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며 "재혼시장에서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선우 외에도 대부분의 결혼정보업체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황혼 재혼 매칭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노인 전문가인 한남대 임춘식 교수(사회복지학)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누구나 '노후에 누구와 살 것인가'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황혼 재혼이 TV에나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

글·김경화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인생 2모작은 부족… 이젠 3모작 시대

# "최고 복지는 일자리… 현역기간을 늘려라"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Life Planning)는 오래 사는 위험, 즉 '장수(長壽) 리스크' 관리에 있다. 무엇보다 현역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조선DB

호텔 지배인 출신 송정의(가운데)씨는 2년 전 동네 노인들을 위해 택배회사를 차렸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건당 800원을 받는 택배기사로 나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7단지 관리사무소 뒤편. 회색의 컨테이너 건물 옆에 천막이 쳐져 있고, 대기업 택배 회사들의 트럭이 오간다.

"김치네! 애고, 왜 이리 무거워?" "그래도 오늘은 가벼운 게 많은 편이야."

소란스러운 하차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은 까치택배. 50대 이상 은퇴자 20여 명이 만든 택배회사다. 여느 택배회사와 다른 점은 직접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는 대형 택배회사들의 물품을 건당 8백원씩 받아 집마다 배달하는 것이다.

대형 택배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집마다 배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노인들은 짧은 이동거리에서 택배를 하면서 수익도 올리는 것이다

이곳의 택배기사들은 모두 취재에 익명으로 응했다. ▲군인 출신인데 아픈 아내를 위해 연금을 일시불로 타서 쓴 뒤 매달 들어가는 수십만 원의 약값 때문에 나온 이모(68)씨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투석 중인 아내 병구완을 하다 카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류모씨 ▲외국계 회사에서 총무과장까지 지냈지만 40대 후반에 퇴직 후 다시 돈벌이 나온 정모씨 등이다.

### 장수 리스크, 미국·일본보다 3배 높아

우리 사회에 장수 현상이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의 현주소다. 경력은 상관없다. 이 회사를 만든 공무원 출신인 송정의(71)씨는 "연금 등 각종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실버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세 인생'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존의 70세 인생, 80세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시간표를 작성하고 여기에 적응하느라 비상(非常)이다. 은퇴 후 삶의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자, 그나마 준비했던 노후 자금마저 바닥을 드러내 고민하는 '장수(長壽)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준비 안 된 장수 노인들은 더욱 절박하다.

대기업체 간부 출신들도 '남 모르게' 택배기사, 경비직 일 등에 도전한다. 교장선생님 출신의 경비, 청소부 등도 등장했다. 100세 시대엔 은퇴 후 삶이 여생(餘生)이 아니라 '제2의 삶' '제3의 삶'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0.87)는 미국(0.37) 일본(0.35) 영국(0.33)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 리스크란 예상치 못한 은퇴 후 기간을 예상한 은퇴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0.87이란 예상했던 은퇴기간보다 87퍼센트 더 긴 은퇴기간을 실제로 산다는 뜻이다. 손성동 미래에셋 이사는 "장수 리스크가 높은 사회의 고령자들은 그만큼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갤럽과 〈조선일보〉가 전국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의 재테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44.1퍼센트)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참신한 실버 비즈니스 모델 많이 등장해야"

은퇴 후 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적 준비를 여전히 소홀해 장수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경기도 구리 토평동에서 10평 남짓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52)씨. 그는 2008년 9월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건설사 임원이었다. 퇴직 후 건설사의 해외법인 등의 관리직 취업을 원했다.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정은 달랐다. 회사 있을 때 우습게 본 중소기업들도 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우선 나이가 많다고, 원하는 연봉이 높다고 외면했다. 좀 더 알아보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줄을 서 있다고 했다. 당장 고등학생인 두 딸과 아내 얼굴이 어른거렸다. 2009년 1월 아파트 경비직에 도전했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였다. 월급은 1백만원. 하지만 석 달쯤 하다 보니, '체면'이 문제였다. 직장 후배와 닮은 사람이 지나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창 민감할 두 딸도 아빠가 경비 일을 한다는 얘기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빠 그런 일 좀 안 하면 안되나요"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결국 창업을 하기로 했다. 그해 6월이었다. 퇴직금 2억원과 35평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7천만원을 더해 총 3억2천만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마음을 졸이고 있다. 오씨는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절반인 50줄에 내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참 힘들다"고 말했다.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교장으로 은퇴한 안모(68)씨. 그는 지난해 12월 19일이 아파트 경비로 일한 지 꼭 3년째다.

연금(3백만원 정도)으로 생활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지만 몸은 건강한데 할 일 없이 시간 때우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년퇴직 후 그는 학원을 운영하는 딸을 도우러 학원 차량 운전도 1년이나 했다.

### 일자리는 국가복지 부담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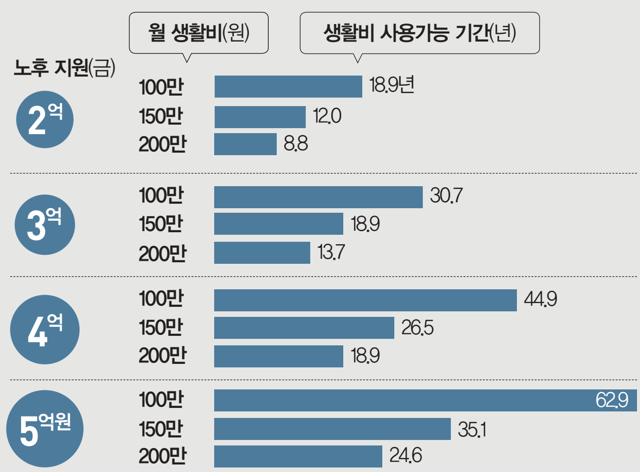
그나마 학원 경영이 어려우니,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었다. 그만두니, 어디 비빌 언덕도 안 보였다.

그래서 찾은 게 지금 아파트 경비 일이다. 안씨는 "처음엔 체면이 걱정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다"면서 "하루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연봉도 1천2백만원"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강창희 부회장은 "100세 인생의 새로운 인생 설계는 오래 사는 위험, 장수 리스크 관리에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역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 55세 이상 은퇴자 중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무려 75퍼센트가 넘는다"면서 "100세 시대 최고 복지는 일자리이며, 정부는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최대한 머물면서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 부담도 더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G 글·이인열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노후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자료 ·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물가상승률 연 3.5%, 운용수익률 연 5.0% 가정
- 생활비 외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음




2008년 6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의 하나로 문 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내 실버카페 '아지오'. 바리스타로 일하는 노인들의 표정이 밝다.

# 누림 · 책임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상적인 노년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으며,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제법 잘 꾸며진 양로 · 요양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며 여생을 살아가는 모습… 하지만 '여생'이 30년 또는 그 이상이라면 이 이상적인 밑그림은 전면 재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 무상복지만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유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자국의 노인 문제를 단편소설집 〈나무〉 중 〈황혼의 반란〉이라는 소설을 통해 이야기했다.

소설은 '노인은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낸다'는 인식의 '반 노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노년층으로 대표되는 주인공 프레드 부부는 자신들의 생명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찾아온 요원들을 뒤로하고 탈출을 감행, 다른 노인들과 함께 반정부 운동을 한다.

하지만 저항하던 노인들은 결국 정부에서 살포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힘을 잃고 쓰러진다. 프레드 역시 병사에게 체포돼 생명 중단 주사를 맞게 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긴다. '너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게다.'

### 100세 시대 맞는 새 복지 패러다임 필요

소설은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다. 하지만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그저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기엔 개운치 못한 구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성장통과 부작용이 예고된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베이

한용환 기자

비붐 세대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논란이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무상복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지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3퍼센트가 된다. 불과 7년 후면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2026년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8퍼센트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 '청년 1명에 부양 노인 3명 시대'가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 개인의 능력 키우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이 가운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백12만명)의 은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실은 간과한 채 현재만 생각한 무상복지 논쟁은 자칫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 아니냐는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다.

재정과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단순지원식' 무상복지에 대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불편한 사실'에 대한 현명한 대비책이 없다면, '100세 시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신 물고기만 주면 된다는 식의 복지논쟁엔 한계가 있다.

100세 시대의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한층 진화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소모적 복지 지출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복지정책의 틀은 100세 시대,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일괄적인 지원책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복지망을 좀 더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 복지의 경우,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 참여 욕구를 반영해 일자리 지원에 힘을 싣는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미래 노인 세대는 과거와 달리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참여 욕구 또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재고용, 전직, 창업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해야

*재정과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무상복지에 대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곧 현실이 될 100세 시대에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선 소모적 복지 지출보다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생활 설계를 강화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의료보장 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양한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기회 제공 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 연령은 53~57세, 각종 경로 혜택은 60 또는 65세로 맞춰져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평균 기대 수명 80세에 맞춰 살아왔고 대부분의 노후 대비도 그에 맞춰져 있다.

곧 현실이 될 100세 시대에 장수(長壽)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선 국가와 개인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G

글·박근희 기자

조선DB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년의 모습은 고령화 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치료보다 예방 중심적 건강관리·의료지원

# 재정부담 줄이고 생활의 질은 높인다

고령화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건강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건강 이상은 재앙이 될 수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불행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사전적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노후 건강보장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건강보험급여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9.3퍼센트에서 2009년 30.8퍼센트로 크게 불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30년이면 50퍼센트, 2050년엔 75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재정부담을 덜면서 보다 효과적인 의료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1차 계획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사후치료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었다면 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다. 치료보다 예방중심적인 의료 지원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반적인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노인 중 86.7퍼센트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DB

정부는 조기진단 등 사전예방적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 노인이 치매 검사를 받고 있다.

64.2퍼센트가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정부는 골다공증과 당뇨병, 골관절염 등 노인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노인성 눈·귀 질환, 골다공증 등 노인들이 잘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과 조기진단, 관리대책을 포괄하는 국가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치의 제도 등 장기요양보험 내실 강화

의료비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6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는 2008년 42만1천명에서 2010년 46만9천명으로 불어났다. 당연히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4백70억원이던 진료비가 2007년엔 3천2백67억원, 2008년 5천34억원으로 급증했다.

치매 부문에서도 사전예방적인 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2단계 국가치매전략'도 수립한다. 치매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치매사업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봐줘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별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집에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조9천억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3조6천억원, 2020년에는 4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질적 향상, 다시 말해 내실화를 '2차 계획'의 과제로 삼고 있다. 요양시설에 전담주치의를 두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환자의 건강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정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도 추진된다. 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재검토해 개편하고 현장밀착형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조선DB

보건복지부는 평상시의 기초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이다.

노인들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사업도 활성화한다.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체계화해 보급한다.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해 평상시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국 234개 시·군·구의 생활체육회에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 가족·민간자본 참여 확대 고려할 필요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건강, 주거상태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에겐 가사돌봄과 건강 및 보건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래의 노인 복지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문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족의 참여 확대도 그중 하나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후 건강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족원에 의한 요양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가족원에 의한 보호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으로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본과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의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이 ‘소셜 임팩트 펀드(Social Impact Fund)’를 조성해 사회복지 프로젝트에 투자해 해당 부문에서 성과가 나면 정부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정부는 큰돈 들이지 않고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민간은 성과에 따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 지출부담이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정건전성 및 재정경직성이 악화되기 전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

글·변형주 기자

# '百年大計' 위한 실버문화 조성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평생교육'이 중요해졌다. 평생교육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실버문화 탄생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최근 평생교육으로 새롭게 생겨난 실버북카페, 실버갤러리 등 실버문화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경민 기자

국내 첫 노인대학인 '덕명의숙'은 50세 이상 입학 가능하며 노래, 스포츠댄스 등 교양수업이 이뤄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퍼센트(2010년 기준)에 달한다. 국민영양·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도 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평생교육기관은 3천2백13개다. 2009년 대비 4백6개(14.5퍼센트)가 늘어난 수치다.

평생교육은 노인 일자리와 실버문화 창출까지 이어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풍물, 포크댄스, 게이트볼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센터 주변 거리를 '실버문화벨트'로 조성하는 등 교육과 함께 문화생활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임아람 사회복지사는 "실버문화벨트는 탑골공원, 종묘공원 등의 종로 일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특히 실버북카페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젊은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8월 오픈한 실버북카페 '삼가연정'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다. 점심시간에는 손이 딸릴 정도다. 아메리카노 2천원, 카페라떼 3천원 등 커피 값이 저렴한데다 실버바리스타들이 내리는 커피 맛이 수준급이기 때문이다. 실버바리스타들은 바리스타 교육 및 홀 서비스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서빙을 담당하는 안열제(69) 바리스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오래 해오다가 정년퇴직 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며 "노인들을 위한 근무체계도 좋아 일하는 재미로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북카페 관리직 모집' 공고를 보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고 한다.

평생교육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2001년부

터 시작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올해로 벌써 10회를 맞이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 축제는 전국평생학습동아리 회원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갖는다.

노인을 위한 영화축제도 있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서울노인영화제'는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영화를 제작해 출품한다. '노인이 직접 제작한 영화'와 '노인을 주제로 한 영화'로 나누어 노인뿐 아니라 젊은 감독들도 참여할 수 있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영화 등 문화생활 즐기며 세대 간 소통**

영화뿐 아니라 예술작품 창작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많아졌다. 지난해 10월 종로에 개관한 실버갤러리인 '고운님 갤러리'는 노인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갤러리에는 노인들이 센터에서 취미로 배운 서예 작품이나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정부 지원 없이 노인들 스스로 만드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 소속 부산실버예술단은 지난해 지하철역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가져 '부산명물'로 떠올랐다.

공연에 나서는 부산실버예술단원들은 70세 전후의 할머니들로 합창, 무용, 하모니카 연주, 가야금 병창 등 갖가지 공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국내 최초 실버영화관인 '허리우드극장'도 개인이 2009년 1월에 설립했다. 종로 낙원상가 4층에 자리 잡은 이 극장은 1960~197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영화를 상영한다.

55세 이상은 영화 관람료가 2천원이다. 60~70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관객 수는 평일 3백명, 주말에는 4백~5백명이 몰릴 정도로 많다. 영화관 설립 후 2년 만인 최근 관람객 수 18만명을 돌파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을 위한 전시공간인 '고운님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곳에서 영화를 보는 남금희(73)씨는 "주변에 영화관이 많지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가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쑥스럽다"며 "그러나 여기는 영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어 우울증도 안 생기고 너무 좋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겨야 하지만 무료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영화관을 공짜로 운영하면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참다운 문화공간이 될 수 없다"며 "최소한의 돈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실버영화관을 운영하는 김은주(37) 대표는 "실버영화관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공감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적은 비용을 받고 운영하다 보니 매년 3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마련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생 100세·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 준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태준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은 "앞으로 국내 인구구조는 노인이 더 많은 역삼각형 구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투자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노인대상 의무교육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노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부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직장–학교로의 평생학습 순환체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곳이 평생교육진흥원이다.

최운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인생 3모작 시대에는 평균 5회 이상 직업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돼 평생교육의 방향이 맞춰질 것"이라며 "과거 노인을 실버세대라 불렀지만 요즘에는 인생의 황금시대를 사는 골든세대로 여겨지고 있어 황금세대의 일자리 연계 교육인 '골든 마이스터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은 '인생 100세 통합지원센터'를 기획하고 있다"며 "학습·일·웰빙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생 100세·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은 일자리 연계와 웰빙 교육, 웰다잉 준비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G

글·이제남 기자

'새로마지플랜 2015'

# 베이비붐 세대여! 이렇게 대비 하세요

보건복지부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에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의지와 2011년부터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담겨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계획들도 포함돼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의 특성 변화도 함께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4.6퍼센트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7백12만 명)를 포함한 미래 노인 세대는 과거와 달리 30퍼센트 내외가 고졸 이상으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른 사회 참여 욕구 역시 높다. 하지만 퇴직 평균 연령은 여전히 53~57세에 맞춰져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5' 중 '고령사회 기반 구축'의 기본 방향은 이들의 은퇴에 대한 대비책과 아울러 보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김혜진 과장은 "'새로마지플랜 2015'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며 "정책 대상자별로 일자리, 소득, 건강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은퇴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

한 제도를 개선, 정착시키는 것에 힘을 싣는다.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백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도 4백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을 의무화해 퇴직연금제도가 일반 사업장에서 널리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을 1백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세제 개선을 실시하여 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 보전수당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한다. 지원연한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 베이비붐 세대에게 '은퇴는 제2의 삶 시작'

'시니어 창업지원'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자 신규창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 창업교육을 실시, 퇴직자의 창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을 실시한다.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는 초·중·고생 대상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커리어코치로 육성한다.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후에도 보건소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한편,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만성질환자와 의사를 1대1로 연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욕구가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2010년 18만6천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20만 개로 늘린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고령 농가의 경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 노인 일자리 확대·노인성 질환 치료 지원

노인 상당수가 건강손실 및 활동장애로 노후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을 감안해 노년기 질환의 특성에 맞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12년 시행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 중이다. 골다공증, 당뇨병 및 골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10년 기준 약 47만명으로 추정된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치료 관리비 지원, 사례 관리를 한다.

이와 함께 치매 가족 모임 활성화와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행사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점차 개선해 나간다.

노화의 원인 규명,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의 연구를 위한 노화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 노인 세대의 높은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해 '어르신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운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 2백46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화하고자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퇴직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가 모여 자원봉사 법인·단체 설립 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여가문화와 관련해 시·군·구별 노인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겐 문화바우처(연간 5만원권 포인트 지급, 2011년 1만명)를 제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힌다.

### 고령자용 임대주택도 단계별로 공급

고령자 부부나 고령자 단독 거주 가구,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을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으로 개정해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단계별로 공급한다.

철도 및 지하철 승강설비 확충·지원,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환경도 고령 사회에 맞게 개선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퍼센트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엔 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를 비롯해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 및 경제활동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들을 위해서는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도 2010년 16만5천명에서 올해 17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G

글·박근희 기자

**전체 인구증가 대비 고령자 가구 증가 추이**

| 연도 | 일반가구 | 노인가구 (1인+부부) | 일반가구 중 노인가구 구성비 | 인구 | 노인인구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구성비 |
|---|---|---|---|---|---|---|
| 2005 | 15,971 | 1,599 | 10.0 | 48,138 | 4,383 | 9.1 |
| 2007 | 16,417 | 1,792 | 10.9 | 48,456 | 4,556 | 9.4 |
| 2010 | 17,152 | 2,037 | 11.9 | 48,875 | 5,354 | 10.9 |
| 2020 | 19,012 | 2,960 | 15.6 | 49,326 | 7,821 | 15.7 |
| 2030 | 19,871 | 4,618 | 23.2 | 48,635 | 11,899 | 24.1 |

자료 · 통계청 인구 및 가구추계 (2005~2030년)

## 故 이태석 신부 유지 잇는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울지 마세요 신부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삶을 헌신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가 조용한 화제가 되고 있다. 업무차 수단을 찾았다가 톤즈마을과 인연을 맺은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 겨울 추위를 녹이는 이태석 신부의 아름다운 헌신담과 톤즈마을의 가슴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 신부의 유지를 이어 수단돕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DB

수단어린이장학회장이기도 한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왼쪽 끝)이 수단 학생들을 초청해 암 투병 중이던 고 이태석 신부(중앙)와 만나게 해주고 있다. 이 신부가 선종하기 한 달 전쯤인 2009년 12월의 일이다. 사진 오른쪽 끝은 수단어린이장학회의 장민석 이사.

"신부님이 남겨주신 나눔의 가치를 많은 이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故)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지 1년인 지난 1월 14일. 수단에서 이 신부의 봉사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며 지원했던 이재현(5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렇게 감회를 밝혔다. 그는 요즘 수단 어린이 지원활동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그는 8년째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이 신부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이재현 정책관이 처음 이태석 신부를 만난 건 2000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 요원으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파견근무를 할 때이다. 이 신부가 선교활동을 하던 남수단의 톤즈마을로 연결되는 비행기편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었다.

이 신부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인 나이로비를 찾아 몇 주씩 머물러야 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 8년째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맡아

가톨릭 신자로 당시 나이로비의 한인 가톨릭회장을 맡았던 이 정책관은 이 신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성당 뒤에서 누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하도 수수하게 차려입어 로만 칼라(성직자의 목을 두르는 옷깃)가 아니었다면 신부인지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이 신부로부터 남수단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전해 들었고 한인회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톤즈마을을 직접 찾기로 마음먹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02년 초 이 신부가 톤즈마을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해 여름에는 파견근무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할 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가 자신을 톤즈마을로 이끌었다고 회고한다. 이 신부가 톤즈마을로 돌아가던 날 "우리 바로 못 헤어질 거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거야!"라며 알 듯 말 듯한 기도를 했다는데, 기적같이 나이로비 체류가 1년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2004년 수단어린이장학회를 설립하고 톤즈마을 돕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신부가 귀국할 때마다 음악회를 열어 후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후원자가 9천명에 달한다. 공무원부터 해물탕집을 경영하는 중년여성까지 수많은 사람이 톤즈 주민들 돕기에 나서고 있다.*

**톤즈마을의 처참함에 놀라고 신부님 헌신에 또 놀라**

2003년 3월 톤즈마을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이 정책관의 동료들은 "먼지에 싸움판에 그곳에 뭐하러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곳"이라며 앞다퉈 말렸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차라리 그 돈이면 유럽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출발 사흘 전 한밤중에 걸려 온 이 신부의 전화는 갈팡질팡하던 그의 마음을 굳히게 했다.

"하 서방(하나님) 빽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출발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20년 이상 계속된 내전에 시달려 온 톤즈마을 사람들의 삶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늘진 곳도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역시 살인적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의 삶은 '문명 이전의 삶'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였다. 밖은 훤히 보이고 모래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집, 가구도 옷장도 책상도 부엌도 이불도 없는 방. 반나체로 걸어다니며 눈만 빼고는 온몸 전체가 먼지로 범벅이 돼 눈만 껌뻑이는 아이들, 식기도 수저도 없이 하루 한 끼 수수로 만든 죽을 손으로 후루룩 먹으며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진흙탕 물을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낙후된 위생상태 때문에 이들이 겪어야 하는 병고도 안타까웠다. 더러운 물에 사는 기생충 알이 몸속에서 자라나 근육을 파열시키거나 피부를 뚫고 나오기도 했고, 선진국에서는 벌써 사라진 결핵으로 고통받아 뼈만 앙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우리 돈으로 불과 몇백 원 하는 항생제 한 알, 진통제 한 알이 귀해 병을 키우고 괜한 병고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의 처참함에도 놀랐지만, 그들을 어루만지는 신부님의 헌신적인 활동에 또 한번 놀랐다"고 그는 말한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는 인력으로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였지만, 이 신부는 A부터 Z까지 진료카드를 빽빽하게 채워가며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가난에서 오는 관절염 환자들이 특히 많았는데 그런 환자들은 앙상한 몸에 썩은 피고름이 가득 차 제대로 걷지 못해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기도 했다.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고 자기들 처방대로 방치했다가 고통을 키운 것이다.

한번은 난산을 하는 산모가 무당에게 굿을 하다가 만신창이가 돼 이 신부를 찾은 적도 있었다. 머리가 다 으깨진 태아를 이 신부가 받아낸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이 신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2005년 펴낸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여태껏 예수님이 보이신 '빵의 기적'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바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제 중 한 분이 가난하고 무지한 이곳에서 5천명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아니 5만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이라는 빵 하나가 앞으로 5백만명은 먹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인 '빵의 기적'을 톤즈마을서 목격**

2003년 6월 귀국한 이 정책관은 남수단의 실상을 국내에 알리고 이 신부를 지원하는 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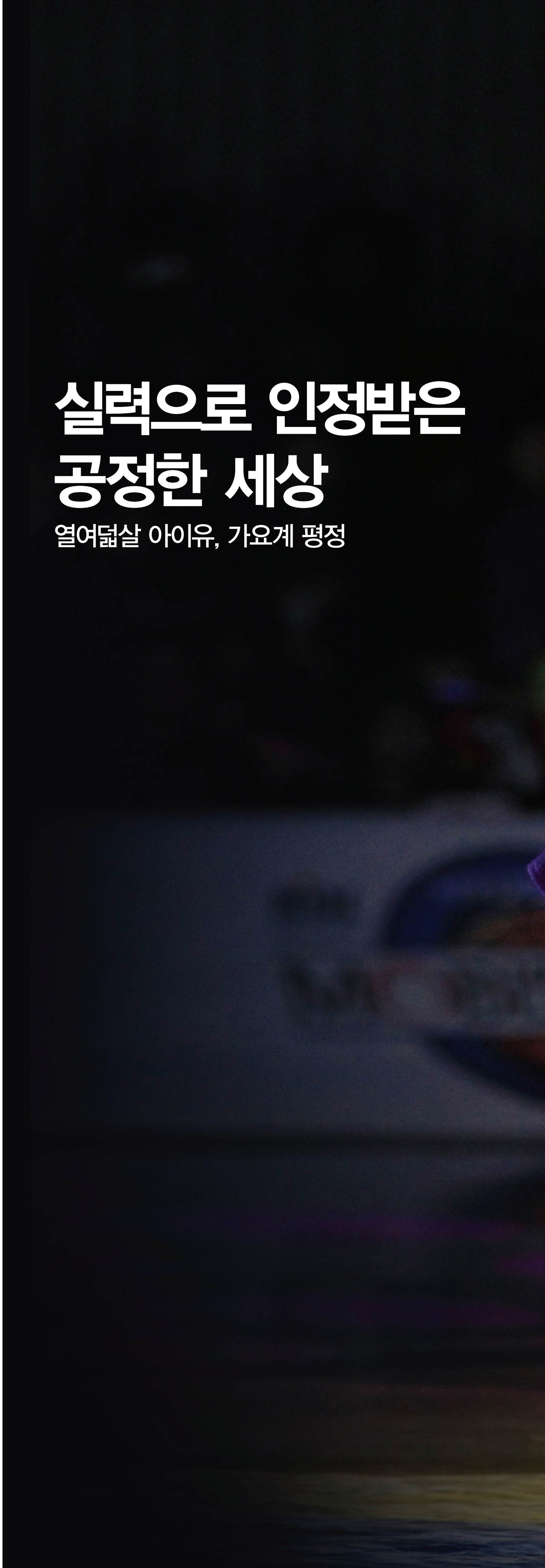
2004년 수단어린이장학회를 설립하고, '수단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 톤즈마을 돕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신부가 잠시 귀국할 때마다 수단어린이돕기 음악회를 열어 후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의 노력으로 장학회는 현재 후원자가 9천명에 달한다. 공무원에서부터 해물탕집을 경영하는 중년여성까지 수많은 사람이 톤즈 주민 돕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신부의 삶이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로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후원이 급증했다. 덕분에 톤즈마을에는 고등학교와 병원이 만들어졌고, 1천5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관은 "신부님은 나보다 나이가 두 살 어렸지만 '부드러움이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며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주변에 나눠주는 모습이 신부님이 진정 바라던 가치였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G

글 · 이왕구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 실력으로 인정받은 공정한 세상

## 열여덟살 아이유, 가요계 평정

만사가 그렇지만 대중음악 분야에서 무한 장수나 영생(永生)은 힘들다. 상당기간 음악계는 걸 그룹과 보이 밴드를 가리키는 아이돌 그룹의 세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 그 구도는 와르르 무너졌다.

얼핏 여리고 앳되어 보이는 여고생 한 명의 금부상에 수년을 호령하던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날'이란 노래를 가지고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아이유(IU, 본명 이지은)의 돌풍은 가히 '아이유 침공'이라고 할 만큼 거세다. 맨몸 하나로 수많은 톱스타들이 포진한 아이돌 성곽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슈퍼스타 빅뱅의 지드래곤과 탑이 짝을 이룬 곡 '하이하이' 그리고 동방신기의 신곡 '왜'가 나왔지만 아이유의 '좋은 날'은 그 높은 벽을 거뜬히 넘어섰다.

소녀시대, 카라, 투애니원, 포미닛 등과 같은 걸 그룹도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일본 활동에 매진하고 있더라도, 신보를 낸 지 꽤 됐다 하더라도 작년 연말 분위기를 장악했어야 할 가수는 이들이었지만 영광의 주인공은 복병 아이유였다.

이제 한국 가요계를 '걸 그룹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없게 됐다. '아이돌 대 아이유'의 형국이다.

모든 것이 아이유의 노래솜씨에서 나왔다. '4초 가수'라는 불명예와 함께 걸 그룹 멤버들의 가창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던 시점에 탁월한 음감과 표현력을 드러낸 아이유의 노래는 상대적으로 잘 들렸다. 막연히 앵앵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미, 휘성과 같은 톱 가수들도 실력을 인정했고 '옛사랑'을 부르는 아이유를 보고 이문세는 "내 노래를 빼앗겼다!"며 극찬했다. 이 점에서 아이유 대박은 패션이나 이미지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재능이 가져다 준 승리 혹은 준비된 가수로서의 당연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 '3단 고음'으로 아이돌 그룹 눌러

결정적인 것은 '좋은 날'의 3분 20초가 지나서 3단계로 고음을 올리는 부분이었다. 아이돌 여가수한테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 고음가창을 두고 팬들은 '3단 고음'이란 타이틀을 하사하며 아이유에게 영광과 포상을 안겨 주었다. 이 3단 고음으로 지금까지 '50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다.

분명 아이유의 성공은 아이돌 그룹에 대한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맺는다. 아이돌과 달라서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아이돌 풍토 속이라서, 즉 아이돌이 유행인 시점이라서 빛을 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아이유도 성격은 다르지만 엄연히 아이돌이라는 얘기다. 아이유는 언젠가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는 발언을 했다.


연합

팬들은 이에 대해 '아이돌 현실을 까는(비판하는) 당돌한 가수'라며 더욱 호감도를 높였다. 아이유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이 대목으로, 여기서부터 그는 '아이돌을 까는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

아이돌에 대한 입장이 말해 주듯 어린 나이에도 의식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강점이다. 예능프로에 비친 아이유는 가식적이지 않고 매우 솔직하다.

학교생활에 대해 인터뷰할 때 자신은 '학교 평균을 깎아 먹는 아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제마저 거침없이 입에 올리는 것이다.

한동안 넋을 잃게 한 아이돌 여가수와 비교했을 때 아이유는 결코 화려한 미모라거나 장신의 S라인 소유자도 아니다. 평범에 가까운 그저 나이 어린 여고생이다. 하지만 나이 어린 그대로의 풋풋한 외모나 행동이 도리어 팬들에게 어필했다.

**내숭떨지 않는 여고생다운 소신언행 인기**

미성년자임에도 성숙한 몸매와 섹시미를 구현하는 데 혈안이 된 다른 아이돌 여가수들과 달라서일까. '아이돌 여가수에 얼을 빼다가 아이유에게 속죄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일각의 풀이도 아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예능프로 '영웅호걸'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덤비는 자세, 예를 들면 벌칙의상을 입을 때 싫다고 내숭을 떨지 않고 재미있겠다며 적극적으로 임한다거나 바보 '영구'를 부끄럼 없이 따라하는 모습은 호감을 줄 수밖에 없다.

노래도 좋지만 가공되지 않은 여고생의 소신 언행이 팬들과 음악관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데뷔했을 때 아이유는 깜찍한 외모로 삼촌들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앨범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발라드 곡 '미아'가 실패하자 빠른 템포의 '부(Boo)'로 전환했고 이어서 댄스곡 '마쉬멜로우'를 냈지만 아직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지난해 투에이엠의 슬옹과 부른 '잔소리'가 다운로드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마침내 아이유라는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고삐를 죄며 '영웅호걸'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아 가는 타이밍에 '좋은 날'을 발매했다. 이 과정에서 댄스와 발라드 그리고 '잔소리', '그대네요'(성시경)와 같은 듀엣 곡 등 나름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였다.

댄스곡 외에는 보여 줄 수 없는 아이돌 가수와 차별화한 것이다. 이것도 결국 실력이 아닐까.

아이유 신드롬의 시사점은 기본을 지키는 것 이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이다. 언뜻 진부하게 들리는, 가수가 유행을 타더라도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달라 보인다는 가요계 속설을 새삼 일깨운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스포츠조선

전자랜드 문태종(오른쪽)이 LG의 동생 문태영의 마크를 피해 골 밑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 프로농구 문태종·문태영

# '코리안 드림'이 현실로… 대단한 형제

한국농구판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혼혈 형제 선수가 있다. 문태종과 문태영. 미국인에 더 가까운 외모에 우리 말은 여전히 서툴지만 농구 실력만큼은 출중해 팀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렉? 그렉이 누구더라?"

옛 친구들로부터 걸려오는 반가운 전화, 너나 할 것 없이 그렉 스티븐슨을 찾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이름이 낯설다. "그렉이 누구지? 내 이름은 문태영인데"라며 혼란스러워 한다.

그럴만도 하다. 문태영이라는 한국 이름을 달고 산 지 3년째, 이제는 새 이름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문태영(33), 남자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에서 뛰고 있는 포워드다. 어머니 문성애씨는 주한 미군이던 토미 스티븐슨과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고 둘을 농구선수로 키웠다.

또 한 명은 문태영의 친형인 문태종(36)으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재로드 스티븐슨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유럽 최정상급 슈터였다.

드래프트가 아닌 자유계약을 통해 용병을 영입했던 4~5년 전 다수의 국내 구단이 영입을 추진하다 비싼 몸값 때문에 포기했을 정도로 실력과 명성이 대단했다.

### 귀화 혼혈선수 문호개방으로 한국무대 진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찾은 어머니의 나라, 혼혈보다는 미국인에 더 가까운 외모에 여전히 우리 말이 서툴지만 형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가고 있다.

둘은 한국농구연맹(KBL)이 귀화 혼혈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한국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KBL은 해외에서 뛰는 혼혈선수에게 귀화를 전제로 용병이 아닌 국내선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생 문태영이 먼저 한국을 찾았다. 2009년 처음 열린 귀화 혼혈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LG에 지명됐다. 형은 1년 후 같은 드래프트에 나서 전자랜드로부터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형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땅을 밟았다. 주저함이 없었다. 30년이 넘도록 미국인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어머니의 나라 한국은 낯선 나라였다. 동시에 호기심과 동경의 나라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는 한식을 자주 접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주지였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교회에 다녔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한국은 제2의 모국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태영은 데뷔하자마자 KBL을 대표하는 스타가 됐다. 2009~2010 시즌 평균 21.9점을 기록해 데뷔 첫 시즌에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승승장구하는 동생의 소식은 형에게 좋은 자극이 됐다. 동생과 함께 나란히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스페인, 프랑스, 터키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문태종은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현재 대신 미래를 택했다. 연봉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세계 굴지의 리그에서 명성을 쌓아나갈 기회도 줄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 어머니의 나라가 이젠 제2의 모국으로

기량은 명불허전(名不虛傳). '4쿼터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작년 하위권이었던 전자랜드의 해결사로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유럽 리그에서도 정상급으로 평가받았던 3점슛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팀 동료인 서장훈은 "외곽슛 실력은 방성윤이나 이규섭 등 국내 정상급 슈터와 비교해도 더 나으면 나았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동생에 이어 형까지 KBL 무대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제 맞대결이 프로농구의 이슈로 떠올랐다. 둘은 이전까지 단 한번도 공식 경기에서 맞대결한 적이 없다. 어린 시절 뒷마당 코트에서 펼쳤던 1대 1 대결이 전부다. 워낙 승부욕이 강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부분 형이 이겼다. 동생은 늘 언젠가 형을 넘어서겠다는 꿈을 꿔왔다.

작년 10월 31일 창원에서 형제의 첫 맞대결이 펼쳐졌다.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했던가. 문태종이 37점을 폭발시켜 팀 승리를 이끈 반면, 문태영은 19점에 그쳤다. 동생은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두 번째 승부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12일 반드시 설욕하겠다고 다짐했다. 형도 물러설 수 없는 경기였다. 미국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문성애씨가 가게 문을 닫고 형제 대결을 보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형제가 자웅을 겨룬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 문성애씨는 "지난번에는 태종이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태영이가 이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태종이에게 미안하고, 어쩌죠"라며 형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고 또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뜻이 전해진 것일까. 이번에는 동생이 웃었다. 문태영은 36점을 퍼부어 13점에 머문 형에게 완승을 거뒀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는 늘 희비가 엇갈리는 법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두 아들을 감싸며 축하와 격려를 나누어 보냈다. 형제가 한국에서 농구선수가 되겠다고 할 때 누구보다 반겼고 또 감격했던 그녀다. '코리안 드림'을 이뤄가는 두 아들의 모습이 마냥 대견스럽기만 하다. G

글 · 박세운 (CBS 문화체육부 기자)

조선DB



**문태종**
1975년 12월 1일생
**키** 1m97 몸무게 97kg
**포지션** 포워드
**출신교** University of Richmond
**드래프트** 2010년도 혼혈선수 드래프트 1순위
**연봉** 1억원(신인 연봉)
**2010~2011시즌 성적(19일 기준)** 경기당 평균 17.7득점 5.0리바운드 3.0어시스트

조선DB



**문태영**
1978년 2월 10일생
**키** 1m94 몸무게 100kg
**포지션** 포워드
**출신교** University of Richmond
**드래프트** 2009년도 혼혈선수 드래프트 3순위
**연봉** 2억8천만원(옵션 3천만원 포함)
**2010~2011시즌 성적(19일 기준)** 경기당 평균 22.0득점 8.4리바운드 3.1어시스트



김승완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서 자원봉사 김형준

# "한국인 자긍심… 정체성 찾았어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민간 의전 지원요원으로 활동한 김형준씨를 만나
감동의 경험담과 미래 설계담을 들어봤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지원한 의전 지원요원 선발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자원봉사자 선발에 지원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지원에서 선발됐으니 상당히 운이 좋았지요."

서울 G20 정상회의 국별 의전연락관(DLO, Delegation Liaison Officers)을 도울 민간 의전 지원요원은 총 30명의 제1그룹 소속 민간 의전 지원요원과 27명의 제2그룹으로 나눠 선발됐다. 인터뷰에 응한 김형준(24)씨는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제1그룹의 민간 의전 지원요원으로 선발돼 지난해 7월 26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활동했다.

의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실무에 투입돼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고된 행군을 해야 했다. 특히, 행사 3~4주 전부터는 날마다 밤 12시 이후 퇴근해야 했고 오전에 행사가 있는 날에는 새벽 6시부터 나와 사전 준비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힘든 일정 속에서 김씨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되돌아보았다. 그중 하나가 '사람'이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부터 50대의 고위직 공무원 등 연령대, 출신 학교, 직업 등 모든 것이 제각각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대학 시절에는 몰랐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다.

함께 성장해 나갈 '동료'를 얻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그와 함께 민간 의전 지원요원으로 활동한 동료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G20 회원국 언어에 능통하며 국제회의 참가 혹은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있는 20, 30대 '글로벌 인재들'이었다.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갖춘 동 세대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자극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 사회 속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생애 첫 국제행사서 자신감 얻어

무엇보다 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그는 말한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전인 20대 중반의 나이에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씨는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다. 초등학교 때 야구선수를 꿈꿨을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해서 선택한 전공이었다.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스포츠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텍사스주립대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선 미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권위를 가진 곳이기에 진학을 결정했지요."

입학 당시에는 프로구단 등 민간 기업에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뀌게 됐다고 한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터였는데, 비록 짧은 경험이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를 경험하고 나서는 9년간의 유학생활로 쌓은 국제적인 감각을 국가를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찾은 길이 '스포츠 외교관'이다.

김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며 "덕분에 외교관이 되어 국익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민간 의전 지원요원으로 외교관 지망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다가오는 봄부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wl



에티오피아 의전을 담당했던 김형준씨(오른쪽)가 이시형 G20 행사기획단장과 함께 서울 G20 정상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진학, 국제협력학 분야를 전공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다시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이유를 그에게 묻자 "한국을 대표해 스포츠 외교를 펼치기 위해선 한국을 잘 알아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생활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김씨의 성장은 '한국에서 보낸 유년시절–미국에서의 학창시절'을 거쳐 이뤄졌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일반인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살아온 셈이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 '스포츠 외교관'으로 확실한 진로 결정

"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로 발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초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느낀 자긍심은 김씨의 이런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심어줬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얼마 전에 읽은 신문기사에서 '10년 후면 한·중·일이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G20 세대'로 분류되는 우리 젊은 인재들이 앞장서서 10년 후의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금은 미미한 역할밖에 할 수 없지만 10년, 20년 후 우리 세대가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게 됐을 때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 등 외적인 확장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메릴린 웡(오른쪽) 씨가 2차 대전 때 아이오와호에서 근무했던 울핀 바저(86) 씨로부터 참전기를 듣고 있다. 뒤에 보이는 전함이 아이오와호.

## "美 시민단체, 한국전쟁 영웅 아이오와호 해체 반대"

# '전함기념관 만들기' 한국에 러브콜

한국전 참전 '퇴역 전함' 아이오와호의 인수자로 중국계 미국인 여성 메릴린 웡 씨가 나서 화제다.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의 미국 이민 세대가 한국전 참전 전함을 인도 받아 기념관으로 꾸미려는 노력은 아이러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 8월 25일 원산항 인근에서 북한군 보급선을 공격하는 등 수많은 전과를 올렸던 아이오와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미국 전함(戰艦) USS '아이오와(Iowa)'호(號)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오와호는 이미 퇴역한 상태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군사항에 정박 중이다. 미 해군이 데드라인(최종 시한)으로 정한 오는 11월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 여성이 아이오와호의 인도(引渡)를 위해 나서 미국 언론의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 메릴린 웡(53) 씨가 약 6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 빛나는 전과를 올린 미국의 역사적인 전함 아이오와호의 인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미국 지역신문 타임스헤럴드와 세크라멘토비 등은 지난 5일 비영리단체 '역사적 전함기념관 준비위원회'(www.battleshipiowa.org) 위원장인 웡 씨가 이 단체를 중심으로 아이오와호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함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아닌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의 미국 이민 세대가 한국전

미 해군

참전 전함을 인도 받아 기념관으로 꾸미려는 노력은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진다.

아이오와호는 1943년 1억2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건조됐으며, 전장 2백70미터, 무게 4만8천 톤, 14층 빌딩 높이의 전함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에도 직접 참전해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과시했지만 1990년 퇴역한 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북쪽 베니시아 인근 수위선 만 예비선대(Suisun Bay Reserve Fleet)에서 다른 퇴역 전함들과 함께 정박해 있는 신세로 전락했다.

### "자라나는 세대에게 살아 있는 역사교재"

미 해군은 통상 기념사업을 원하는 단체 등에 퇴역한 전함을 인도하는 게 관례다. 교육용이나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려는 민간인과 자치단체에 기꺼이 양도한다. 하지만 아이오와호는 최근 어려워진 미국 경제상황으로 이를 인수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본 웡 위원장이 50명의 민간인들을 규합, 아이오와호를 인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는 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무보수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야말로 순수한 취지에서 전함을 활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웡 씨는 "민간단체가 전함을 인도 받아 역사관으로 꾸민 사례가 40건이나 된다"며 "해군으로부터 전함을 양도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확보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 등을 상대로 투자 유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이오와호는 2차 대전과 한국전 등에 참전해 중요 임무를 수행한 만큼 자라나는 세대에게 살아 있는 역사 교재가 될 것"이라며 "건조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져 수학·물리·화학·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육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방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원을 비롯해 미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연방법상 전함의 박물관 개조 등에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민간 차원의 유치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이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측면 지원을 한다면 재정확보에도 유리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아이오와호를 양도 받아 박물관 등으로 개조하는 데 최대 2천만 달러(2백24억원 상당)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최종 인도 시기에 맞춰 자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오와호가 한국전에 참여했던 만큼 한국의 투자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관심을 요청하고 이미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전함기념관 준비위원회는 아이오와호의 양도승인이 나면



아이오와호는 1990년 퇴역한 뒤 다른 퇴역 전함들과 함께 정박해 있다.

전함을 내파 밸리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다. 2차 대전 당시 전함을 건조했던 조선소 소재지 매어(Mare)섬 부근 발레오시로 옮겨 박물관과 호텔, 기업전시관, 각종 오락 및 관광시설 등으로 개조해 관광객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관, 한국기업 전시관 등을 만들 생각도 있다. 한국전에 참전한 만큼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224억원 있으면 박물관 등으로 개조 가능"

위원회는 특히, 한국 동포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샌프란시스코와 내파 밸리 인근에 정박한다면 매년 수많은 미국인 외 한국 등 외국인 방문객들에 찾아와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소한 연간 50만 명 이상이 찾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이오와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 1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등과의 회담을 위해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갈 때 이용했으며, 2차 대전 종전 때는 도쿄 만에서 일본의 항복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국전쟁 중에는 1951년 8월 25일 원산항 인근에서 북한군 보급선을 공격하는 등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한국전 이후에는 1988년 페르시아 만에서 유조선의 출입을 호위했으며, 1989년에는 훈련 중 발생한 폭탄사고로 수병 47명이 선상에서 숨지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아이오와호는 이래저래 지난 60여 년 동안 숱한 해전 참여 등 냉전시대의 다양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파란만장한 경험을 한 전함이어서 퇴역 후에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민간단체가 한국의 지원을 받아 전함을 인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세계언론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 운명의 날은 10개월 후에 판가름 난다. G

글·정병선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



# 물 깊고 경치 좋은 여강 백리길 시객들의 풍류도 물길따라 흐른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우리의 강들은 유유히 흐르는 그 물결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빚어 왔다.
'4대강 따라 국토기행'은 대한민국의 땅과 사람, 문화, 삶의 모습을 강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 첫 번째는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경기도 '여주'다.



남한강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는 신륵사 다층전탑.

조선DB

한강의 2대 지류인 남한강은 강원도 오대산을 떠나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거쳐 서울의 중심부로 연결된다.

이 중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부터 이포대교 부근 금사면 전북리까지 지나는 남한강 물길을 '여강(驪江)'이라 부른다. 규모로 보자면 총 38.9킬로미터, 약 일백리다.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던 조선 전기의 문인 서거정은 여주 남한강에 대해 "멀리 동쪽에서 몇백 리 흘러 내려온 강물이 여주에 이르러 강폭이 점점 넓어져 여강이 되었는데, 물결이 맴돌아 세차며 맑고 환하여 사랑할 만하다"고 했다.

여강이란 이름은 여주의 옛 이름인 황려(黃驪)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려의 문신이자 재상이었던 이규보는 '웅(雄)하고 기특한 쌍마(黃馬, 驪馬)가 물가에서 나오매 현 이름이 황려(黃驪)가 되었네'라는 시를 통해 여주 지명의 유래를 밝힌 바 있다.

〈택리지(擇里志)〉의 저자 이중환은 '긴 강이 동남방에서 동북방으로 흘러들어 마을 앞에서 띠를 둘렀는데 이곳이 강가 중에 제일가는 마을이다. 주민들은 배로 장사하는 데 힘써 농사에 대신하는데, 그 이익이 농사하는 집보다 낫다'고 여주 지방을 묘사하기도 했다.

옛 문헌에서는 여강을 상류부터 단강, 여강, 기류로 나누었다. 여강 위의 단강 부근은 물이 깊어 수려한 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여강 아래는 금사면 지역으로 넓은 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경치가 좋아 예로부터 사대부뿐만 아니라 시객들이 선호해 온 곳으로 유명하다.

역대 주옥 같은 시가 이곳 여주에서 탄생한 것도 이와 같다. 강을 따라 도처에 나루와 정자, 크고 작은 사찰이 있고, 다양한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강 따라 걷는 '여강길 답사 코스' 인기**

남한강을 따라 여주가 시작되는 마을은 점동면 삼합리다. 삼합리(三合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남한강과 섬강, 청미천이 만나 세 물머리를 이루는 곳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름만 남아 있는 창남나루를 지나면 아홉사리고갯길이 나온다.

아홉사리고갯길은 '마치 국수 면발처럼 아홉 고개가 얽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경상도나 충청도 동북지역 사람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이다.

우만리 나루를 지나 바위늪 구비에 이르는 십여 리의 길은 걷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여강길 답사 코스' 중 한 곳이다.

여강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7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곳이다.

여강길 답사 코스는 현재 3코스, 총 55킬로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1구간인 옛나루터길은 1백15.4킬로미터로 여주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 영월루, 은모래금모래, 우만리나루터, 흔암리나루터, 흔암리선사유적지, 아홉사리과거길, 도리마을회관 등을 거친다. 현재는 강천보 공사로 연양리 마을로 우회하게 돼 있지만 전 코스 도보 가능하다.

2구간은 세물머리 구간이다. 총 17.4킬로미터로 3구간 중 가장 짧은 코스로 통한다. 청미천과 중군이봉, 삼합리, 개치나루터, 법천사지, 흥원창 등을 거친다.

3구간인 바위늪구비길은 흥원창에서 시작해 해돋이산길, 여성생활사박물관, 남한강 대교 밑, 오감도토리마을, 목아불교박물관, 조포나루, 영월루 등을 거치는 코스다. 현재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코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걷는 사람들의 모임 여강길'(031-884-9089, www.rivertrail.net)에선 여강길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구제역과 한파로 잠시 중단한 상태다. '걷는 사람들의 모임 여강길' 박희진 사무국


1

조선DB


2

장은 "눈 올 때 운치 있는 코스여서 구제역만 진정된다면 걷기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넓고 깊은 강만큼이나 여주는 세종대왕릉인 영릉을 비롯해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고달사지, 파사성, 신륵사, 대법사, 대성사, 흥왕사 등 문화 유적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총 75점의 국보 및 천연기념물 등을 보유 및 보호하고 있다.

남한강 상류의 물줄기를 따라 펼쳐진 평야와 구릉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면 파사산의 파사성(사적 제251호)이 가볼 만하다. 파사성은 파사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석축산성이다.

신라 제5대 임금인 파사왕(재위 80~112) 때 처음 쌓았고 임진왜란 때 승장 의엄(義嚴)이 승군을 모아 성을 증축했다고 전한다. 시대마다 축조방법이 달라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삼국시대 축성된 부분과 조선시대 축성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영녕릉·신륵사 등 문화 유적 간직**

여주 문화 유적 답사를 하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다면 바로 영녕릉(英寧陵, 사적 제195호)일 것이다.

그 중 영릉(英陵)은 조선 4대 세종(재위 1418~1450)과 부인 소헌왕후 심씨(1395~1446)의 무덤이다.

세종 28년(1446)에 소헌왕후가 죽자 헌릉 서쪽 산줄기에 쌍실 무덤인 영릉을 만들었다. 동쪽 방은 왕후의 무덤으로 삼고, 서쪽 방은 왕이 살아 있을 때 미리 마련한 무덤으로 문종 즉위년(1450)에 왕이 죽자 합장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한 봉우리에 서로 다른 방을 갖춘 합장무덤 형태로 의미 있는 곳이다. 이어져 있는 세종산림욕장으로 가면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신륵사는 강변 천년 사찰로 유명하다.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신륵사는 고려 때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후 조선시대엔 세종대왕의 능을 여주로 이장할 때 세종대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3개의 탑이 남아 있는데 다층석탑(보물 제225호)은 대리석으로 다듬은 조선 전기의 작품이다. 비늘과 발톱까지 섬세하게 표현돼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강가 높은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는 다층전탑(보물 제226호)은 남한강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어 "그 옛날 뱃사공들에게 등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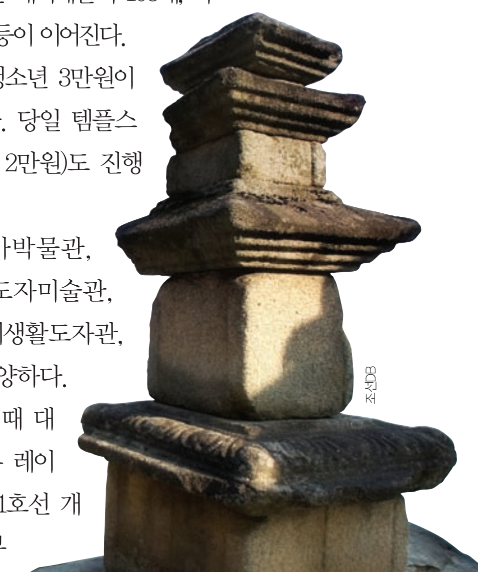
삼층석탑 옆의 강월헌(江月軒)은 작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추노' 속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신륵사에선 템플스테이도 운영한다. 1박2일 체험 중 첫날은 다층석탑 등 신륵사 경내 문화유산 답사 후 발우공양, 저녁예불, 탑돌이 순으로 진행한다. 둘째 날은 새벽예불과 108배, 좌선명상, 다도, 강변길 산책 등이 이어진다.

체험비는 성인 5만원, 청소년 3만원이며 4인 가족은 15만원이다. 당일 템플스테이(오전 10시~오후 4시, 2만원)도 진행한다.

해여림식물원이나 목아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현대도자미술관, 한얼테마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폰 박물관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때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들여온 레이저 현미경,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시승한 전동차, 우리나라 최초로 외교문서 작성에 사용된 영문타자


조선DB

신륵사 3층 석탑.



조선DB



조선DB

**1** 해질녘 여강. 호수처럼 잔잔하다.
**2** 이이제이(以夷制夷) 구국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명성황후 생가.
**3** 임금님께 진상하던 여주쌀밥.

기, 미8군 의료진이 철수하며 두고 간 의료기기와 의학서적, 아웅산 폭파사건 때 사망한 장관들의 유품 등 한얼테마박물관에서는 이우로 관장(85)이 평생 수집한 50만점의 유물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도자기의 마을인 만큼 도자기 관련 관광지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도자미술관은 경기도 여주 도예촌 작가 고월봉 선생이 설립한 미술관이다.

총 3천2백 점의 도자기가 전시돼 있는데 '컬러세라믹'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도자기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지하 1층에선 가족 및 단체관람자를 위해 도자 체험 실습실도 운영한다.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은 신륵사와 인접해 있으며 남한강을 바라보는 여주 관광 필수 코스 중 하나다.

### 식물원·박물관 등 관광 인프라 산재

생활도자기 전문 전시관으로 2개의 대형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예공방과 전통 옹기 가마, 한글 나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들이 즐겨 찾는다.

불교 관련 유물 및 조각품은 목아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수집한 6천여 점의 소장품을 구경할 수 있다. 전시관에는 불화, 불상 등의 유물과 함께 동자상을 비롯한 불교관계 목공예 작품들이, 야외 조각공원에는 미륵삼존불, 비로자나불, 삼층석탑, 백의관음, 자모관음상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생활사박물관에선 천연 염색의 진수를 구경할 수 있다. 천연 염색가로 활동하는 이민정 씨가 폐교된 강천초등학교 강남분교에 설립한 곳으로 여성들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장신구들을 만날 수 있다. 천연 염색 체험도 진행하는데 체험 특성상 동절기에 한해 쉰다. G

글·박근희 기자

### 4대강살리기 사업 뒤 여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희귀 동식물이 사는 여주 담낭지구의 이포보와 초지경관에는 이포습지, 부처울습지, 복대습지 등을 아우른 친환경 수변공원이 들어선다. 여주보가 설치되는 여주군 천남·가산지구는 물억새 군락지로 꾸며진다.
수변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 둔치 숲과 제방 숲, 억새 군락지도 조성한다. 가산지구는 이팝나무를 심어 흰 꽃 군락지로, 천남지구는 산수유를 심어 노란 꽃 군락지로 특화한다. 황포돛배가 있는 연양지구는 강천보를 조성하고 느티나무 2백 그루를 심어 수변 경관성을 높인다. 금은모래터 주변에는 황포돛배 모형의 체험형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
강천지구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처는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만을 만들어 유지할 계획이다.

### 여·행·정·보

**교통** 서울에서 경부·중부고속도로 이용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 나와 37번 국도따라 4킬로미터 직진 후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다시 여주대교 건너 우회전하면 **신륵사**(031-885-2505)가 나온다. **명성황후 생가**(031-887-3576)는 여주 나들목에서 나와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800미터 전방에, **세종대왕릉**(031-885-3123)은 명성황후 생가를 지나 이천 방향으로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숙박** 신륵사 관광지와 그 주변에 **남강호텔**(031-886-0303), **일성남한강콘도**(031-883-1199, www.ilsungcondo.co.kr) 등이 있다. 여주와 인접한 이천 **호텔 미란다**(031-639-5000, www.mirandahotel.com)는 부대시설로 워터파크인 스파플러스를 갖췄다.
**먹을거리** 여주쌀밥, 민물매운탕, 천서리 막국수가 유명하다. 강변관광단지 **여주쌀밥**(031-884-3578)은 1998년 여주군청에서 공식 지정한 여주쌀밥집 1호다. 남한강을 내다보며 엄마 손맛 담긴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여주농협이 선정한 최상품의 여주 햅쌀에 호박씨, 고구마, 흑미, 대추 등을 넣어 밥을 짓는다. 주인이 직접 담근 장으로 무쳐 내는 나물들이 맛있다. 신륵사 관광지에선 **명성회관**(031-885-3234)이나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예닮골**(031-883-5979) 등이 먹을 만 하다고 소문나 있다.
50년 전통의 2대째 내려오는 매운탕 맛집은 여주군청 뒤에 있다. **여주선**(031-884-2616)은 "여주나루터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주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일대 매운탕 맛을 평정했다"는 전설의 맛집이다. 베스트셀러는 쏘가리매운탕(5만~9만원)이다. "직접 담근 고추장과 싱싱한 생선만으로 맛을 내는 게 기본이며 민물 새우는 넣지 않으나 원할 경우에 한해 넣어 준다"는 게 주인 박태희 씨의 설명이다.
천서리 막국수는 매년 축제를 열 만큼 유명한 여주군의 대표 음식으로 육수를 부어 흥건한 춘천 막국수보다 매운맛이 강해 비빔면과 비슷한 게 특징이다.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여는 이포대교 부근 천서리 일대에 막국수 전문점이 6~7곳이 분포돼 있다.
**홍원막국수**(031-882-8259)는 3대째 이어 내려온 맛집으로 비빔막국수(6천원)와 편육(1만2천원)이 인기 메뉴다. **천서리막국수**(031-883-9799)는 웬만한 맛 전문방송엔 다 소개된 곳으로 육수 맛이 비교적 깔끔하다는 평이다. 일대에선 원조로 꼽히는 **강계봉진막국수**(031-882-8330)는 "최근 매운맛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소문날 정도로 강한 양념을 가미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여주군청 문화관광과 031-887-2871




# 사랑받는 선진국 길을 물었습니다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 기획팀 엮음 / 마리북스 펴냄 · 1만5천원

"미래는 관계기술(RT, Relations Technology)의 시대가 될 것이다. 각기 다른 분야의 기술이 연관을 맺으면 승수효과가 생겨나고,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과학과 기술이 괄목할 만하게 변하고 발달하면서 미래 사회를 지배하게 될 기술이 바로 관계기술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관계기술이다. 위에서 지시하는 정부가 아닌 관계를 맺어주는 중매인이 되는 것이다."(김광웅)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자는 당부도 담고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자세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조언도 함께 말이다.*

### G20 정상회의가 우리의 좌표 확인에 큰 도움

화제의 신간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은 각계의 명사 2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나눈 공개 강연회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책에는 박세일, 김광웅, 한비야, 이원복, 김용택 등 이 시대 대표 지성들의 시대를 보는 혜안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히들 5천년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반도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을 모두 합친 것이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목표는 경제성장이었고 그것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다. 이런 우리에게 2010년 11월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우리나라가 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규칙을 따르기만 했던 입장에서 규칙 제정자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떠올린 화두는 '과연 우리는 선진국인가?'였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만큼 분명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보면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지성들은 다양한 목소리로 그 원인을 짚어내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의 그늘을 보듬어야 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 더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고 있다. 의식의 변화는 몇 대에 걸쳐 서서히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제는 '공존'을 국가적인 목표로 또 '사랑받는 국가'를 선진국의 목표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지 않으면 설령 세계 일류 국가가 된다고 해도, 지금의 미국과 일본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한다.

### 스마트워크 시대 성큼 다가와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자는 당부도 담고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자세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조언도 함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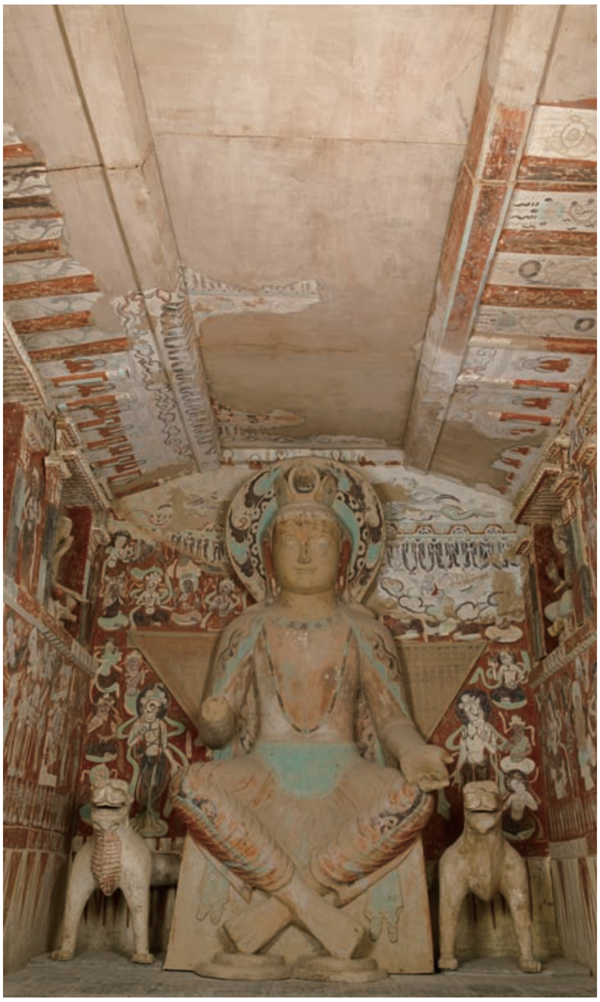
이제는 군사력, 경제력 등과 같은 하드 파워로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문화적인 매력, 즉 소프트 파워가 개인, 사회,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세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했으며,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스마트워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G

글 · 서일호 기자

# 향기로운 화장실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국립중앙박물관



# “와~ 왕오천축국전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와 둔황전’… 세계 첫 공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실크로드와 둔황전’에서는 ‘왕오천축국전’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오천축국전’이 이번 전시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다. 왕오천축국전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해외여행기로 신라 승려 혜초(704~780)가 다섯 천축국(인도의 옛이름)과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 서역 지방을 기행하고 쓴 여행기다.

이번 전시는 8세기 혜초가 여행했던 길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실크로드의 도시들, 실크로드의 삶과 문화, 둔황과 왕오천축국전, 길은 동쪽으로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실크로드 출토 유물, 직물, 복식, 벽화 등 다양한 작품(2백20여 점)이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문물들이 활발하게 교류됐던 동서문명 역사를 대변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G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일시** 2011년 4월 3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Ⅰ,Ⅱ **관람료** 성인 1만원, 중 · 고등학생 9천원, 초등학생 8천원, 어린이 5천원 **무료입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 동반 1인(보호자) **문의** 1666-4252 www.silkroad2010.com

### 뮤지컬 〈넌센세이션〉

뮤지컬 〈넌센스〉 시리즈가 한국공연 20주년을 맞았다. 넌센세이션은 〈넌센스〉 시리즈의 결정판으로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며, 수녀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흥미진진하다.

**일시** 2011년 1월 30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관람료** VIP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44-4334



조선DB

### 오페라 〈투란도트 Turandot〉

〈투란도트〉는 공주 투란도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왕자 칼라프가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을 그린다. 국립오페라단의 이번 공연은 한중 예술가들이 함께하며, 오리엔탈리즘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

**일시** 2011년 1월 25~28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1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장애인 1~3급 및 국가유공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장애인 4~6급 본인만 50퍼센트 할인 **문의** 국립오페라단(586-5282) www.nationalopera.org



조선DB

# 진정한 행복은?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람은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눌 때 비로소 행복은 몇 배로 깊어지고 넓어진다. – 프랑수아 를로르

# 한국이 제2의 고향이냐고요? "당근이죠"

한국에 온 지 3년이 돼 가고 있다. 2008년 3월 나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다운 경치와 전통, 사람들에 반해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



〈낭랑 18세〉라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는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시골 도시를 유학 갈 곳으로 주저 없이 결정했다. 경북 안동(安東)이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안동에 도착한 후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겨울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처음 1주일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말은 통하지 않았고, 음식은 입에 맞는 것이 없었다. 문화 차이도 커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는 한국 유학 생활을 못 견디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 시골에서 2년간의 유학생활을 꿋꿋하게 참았다.

##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찜질방 문화

큰마음을 먹고 한국에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툰 한국어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았다. 나는 처음에 '당근'이라는 말이 '야채'를 뜻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얼마 후 친구들이 '당연하지' 혹은 '물론'이란 뜻으로도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하루는 수업 중에 교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나는 '물론입니다' 또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는데, "당근이죠"라고 대답을 했다. 그 순간 우리 반 학생들과 교수님이 얼마나 웃는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인들이 예의범절을 깍듯하게 지키는 것도 무척 인상 깊었다. 같은 학과 선후배들은 멀리 있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큰 소리로 서로 인사를 하곤 했는데 나에게는 무척 정겨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때로는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도 엄격한 선후배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다. 나는 비슷한 나이끼리 너무 엄격한 선후배 관계를 따지는 것은 건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몇 년 살면서 보니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몇 가지 관찰할 수 있었다.

찜질방 문화도 그중에 하나다. 찜질방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한다. 찜질방 안에서 TV를 보고,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음료수도 마셨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찜질방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현대 도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해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 보았다. 한국은 작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가진 나라다.

가을에 내장산에 가면 만산편야(滿山遍野·산과 들에 가득히 뒤덮임) 화홍(火紅·타는 듯 붉은)의 단풍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백설애애(白雪皚皚·깨끗한 흰눈에 싸여 있는 모습)의 설악산이 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잘 관리했으면 한다.

그 밖에 한국 아줌마들의 친절도 무척 인상적이다. 아줌마들에게 길을 물으면 예외 없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커서 실망을 많이 했지만, 한국의 풍습에 익숙한 지금은 아주 편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누가 물어도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G

유염 (중국인 유학생·중앙대 대학원 회계학과)



# 뽑는데 1초,
# 자라는데 20년

1톤의 종이컵을 만드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 만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